
장단기발전위원회 제안서 발간을 위한 공청회

(완본)

1차(서울, 경기권) 2016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 종교교회
2차(충북, 동부권) 2016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 명륜교회
3차(충청권) 2016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 대전중앙교회
4차(삼남권)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삼남연회본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

감리교회의 부흥과 건강성 회복, 다양한 목회형태에 따른 전도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개체교회 부흥 연구실’의 설치

서언

한국 감리교회는 현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와 성찰을 통해 감리교회의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교회는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가 있고, 철저한 대비에 소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감리교회 전체 구성원이 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대비를,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진행하여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한국감리교회를 통하여 보다 더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기상황

한국교회 아니 감리교회의 위기상황은 이제 모두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느끼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의 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이미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면단위 이하에서는 대부분인 경우가 되었고, 교인수의 감소, 도덕적, 영적 지도력의 약화, 사회적 신뢰도의 추락, 안티기독교, 이단의 적극적인 교회 공격 등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남한의 인구수는 이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109만명으로 전망하고 있고, 종교인 수에서 개신교인 1,200만에서 865만으로 이미 집계되고(통계청 2005년), 이 숫자는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외적인 다양한 변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문제역시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총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상황의 예상

계몽주의 이후로 서구 기독교는 점차 힘을 잃어 왔으나 기독교 자체는 몰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카톨릭, 그리스 정교, 오순절파, 개신교계에서는 교파에 상관없이 복음주의적 성향을 띤 교파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한다.(알리스터 맥그래스, 기독교의 미래(좋은씨앗 2005))

또한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영국, 미국,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영국인의 절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통계와, 기독교인 비율이 1990년 86%에서 2001년 77%로 하락한 미국의 통계가 있다.(조지 오초아, 멜런다 코리, Next Trend, 한국경제신문 2005)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아프리카, 아시아 기독교인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97-2000년 사이에 아시아 기독교인은 2300만이 증가하고, 아프리카는 900만이 증가했다.(이문장, 앤드류 윌즈, 기독교의 미래: 기독교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청림출판, 2006))

동시에 정통교리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께서는 기독교의 근본을 다시 세우시고자 전세계 모든 교파에 온전한 그리스도적 가르침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셨다”는 것이다.(Thimas C. Oden,

The Rebirth of Orthodoxy: Sign of New Life in Christianity, Harper Collins, 2002)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도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대위기를 대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국면에 적합한 목회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성경의 근본해법을 숙지해야 한다.(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의 회복,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또한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교회의 리빌딩)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교회의 공통 5소명

1. 3가지 씨뿌리기(전도, 신앙계승, 출산장려)
2. 교육부서 활성화
3. 신 중년 50-70세의 사역
4. 가정지키기(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5. 통일과 다민족시대의 준비

개별 2소명

지역적 특성과 인구특성변화에 따른 목회전략의 전환 - 작은 교회, 아름답게 사라지는 교회를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물론 교회의 본래모습이 회복된 교회를 전제하는 것이다.(최윤식, 최현식, 20202-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 1, 2(생명의 말씀사, 2013, 2015))

상기글은 박해령 교수(협성대학교 구약학)의 글 ‘성서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와 그 미래’라는 글에서 일부 발췌 정리한 것이다.

장단기발전위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장단기 발전위원회를 두어 이런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위원들의 비전문성, 임기의 단회성, 목회우선의 생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목표접근에 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1분과 위원회가 담당할 분야는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개체교회 부흥정책, 다양한 목회형태(농어촌, 다문화)에 따른 전도프로그램이다. 30회 총회 위원회가 다룬 이론적 제시를 제외하고 31회 총회 위원회 1분과는 구체적인 한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한다.

담당분야 전체를 다루기는 한계가 있어 이를 담당하고 이끌어가는 기구를 만들고 시작하게 함으로 보다 나은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문제 제기

장단기발전위원회 1분과가 감리교회의 부흥과 건강성 회복, 다양한 목회형태에 따른 전도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계획과 진행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2년 임기의 위원이 2년마다 바뀌는 시스템 속에서는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발전이나 변화,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총체적인데, 이 총체적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하며, 일선의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의하며 발전시켜나가는 기구와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구와 조직이 만들어지고 해당분야에 관계된 유기적 연결은 창조적인 교회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해결방안

‘개체교회 부흥 연구실(이하 연구실)’의 설치

1분과의 과제인 개체교회의 부흥과 건강성 회복, 다양한 목회형태에 따른 전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을 선교국의 부서로 설치한다.

선교국 팀장을 실장으로 발령하여 ‘연구실’을 운영하도록 한다.

실장은 매년 개체교회의 부흥과 건강성 회복, 다양한 목회형태에 따른 전도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관기관장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입하여 연관 네트워크들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당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감리교 교역자는 누구든지 공유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관네트워크 형성

연구실은 유기적으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는 각 지방 선교부총무를 연결하는 오프라인과, 전국감리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다룬 것들을 종합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토의하고 정리하여 온라인상에 올리는데, 일 년에 2회 이상, 연회, 총회단위로 회집한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항상 열어두고 문제, 실험, 성공사례, 실패사례, Q, A 등이 자유롭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들을 나누고 정보들을 제공하며, 토의하고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네트워크의 조직에서 오프라인 조직은 각 연회단위로 모임을 가지고 대표를 선정하고, 그 대표들이 모여 총회단위모임을 가진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조직은 연계하여 전체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모임은 연구실이 중심이 되고 연구실에서 조직을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형성과 나눔

네트워크와 온라인, 핸드폰 앱들을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함께 연구한 과제의 결과물과 개 교회에서 실험한 결과들, 그리고 실제 성공사례, 실패사례들을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감리교회 교역자는 누구든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교역자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 중에 특히 QA 자료를 정리하고, 온라인망에서 해당질문을 직접하고 싶은 감리교 교역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제공받은 대답과 실제사례들을 본인이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하고 이를 다른 교역자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실질적 필요에 의한 자료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신학대학에 전문위원을 두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Q, A실시간 온라인 망 구축

특별하고,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망에서는 가급적 실시간 Q, A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후배간의 직접연결을 진행한다. 상호간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연락을 필수로 하

고, 서로가 합의한 시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실이 이를 돕는다.

개인 영성강화에 대한 자료

* 목회자 개인의 영성강화를 위한 자료와 경험들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온, 오프라인으로 마련한다.

온, 오프라인 모임

* 매년 2회 교회부흥과 건강성 회복에 관한 토론과 발표를 하고, 네트워크 교회가 이에 동참하게 한다.

* 매년 연말에 네트워크 교회들의 공동모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필요한 연구방안을 마련하여 재조정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결어

이 연구실에 대한 제안은 시대적 총체적 대비를 위한 초석이다. 단지 몇몇 사람의 생각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와 신속한 대체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 해결도 쉽지 않지만, 점차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보다 나은 방법과 생각, 기도와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적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필요한 데이터 양이 늘어나 모두의 필요에 적용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영성을 위한 모임으로, 온 라인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제도개편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의 제 문제
 - 2) 타 교단의 선거제도 일람
 - (1) 장로교단의 현행 선거제도
 - (2) 미국감리회(UMC)의 감독 선거제도
 - 3) 대안으로서의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제안함
 - (1)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모델
 - (2)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한계와 대처
3. 연회와 지방회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 1) 현행 연회와 지방회 제도의 제 문제
 - 2)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를 제안함
4. 목회자의 정년 탄력제 도입을 제안함
 - 1) 현행 목회자 정년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안
 - 2) 목회자 정년 탄력제의 기대되는 효과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라는 영국에서조차 무신론자 수가 기독교인 인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세인트 메리 가톨릭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무교 인구는 전체의 48.5%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를 모두 합친 43.8%보다 많았다. 이것은 2011년의 무교 인구인 2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특히 성공회의 경우 신도 1명이 유입될 때마다 12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¹⁾

지금 감리교회의 상황은 이 보도가 남의 일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1) 2016년 5월 24일자 영국 가디언(www.theguardian.com/international)지 보도 내용 요약.

의 감리회 통계도 영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위기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213지방회에 5,704 교회, 8,790명의 교역자와 1,507,994명의 교인이 감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5년 전인 2011년에는 223지방회에 6,136교회, 9,955명의 교역자와 1,586,063명의 교인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면 교회 수와 교역자 수는 다소 증가하지만 교인 수는 1,580,381명으로 5,682명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016년의 교세 현황은 지방회수 216개, 교회 수 6,344, 교역자 수 10,833명에 교인 수는 1,375,319명으로 약 20만 명이라는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²⁾

물론 교인 수의 감소는 감리회만의 현실은 아니다. 개신교 전체의 교세가 감소하고 있고, 타 교단도 동일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리회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리회는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원론적으로는 감리회의 신앙과 신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8년이나 지속된 교단의 분열과 교단 신학교들의 분쟁 등으로 감리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저하됨으로써 불신자는 물론 기성교인들에게서조차 외면을 받게 된 것이다.

21세기 사회와 문화가 세계화, 포스트모더니즘, 소비문화, 정보화라는 급변하는 환경임에도, 감리회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감리회의 제 문제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교단본부와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개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교단 내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개혁과 개선안들을 참고로, 감리회의 지도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의 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비뽑기’ 선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연회와 지방회 제도의 개선 방안과 목회자의 정년 탄력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하여

1) 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의 제 문제

2016년판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며,³⁾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실장, 원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⁴⁾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과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적인 최고 지도자이다. 영적 지도자의 첫 째 조건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것은 행정력보다 우선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감리회의 감독과 감독회장은 영적 지도자의 조건은 무시되고, 행정가의 이미지만 남은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그 행정력마저도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이전까지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오염되면서 당선자들이 영적 권위

2)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홈페이지 통계현황. 2016년 통계는 미주연회 미포함 자료임.

3) 교리와 장정, 2016.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215단 제106조 ①항

4) 위책, 제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2절 감독회장, 244단 제135조 ①항

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이 학연을 내세우며 극심한 분파주의로 교회를 분열시켰다고도 주장한다. 또한 8년여 계속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실추되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이들은 감독과 감독회장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개최된 제31회 총회는 말 그대로 빈 수레가 요란한 총회였다. 1년 이상 연구하고 준비한 개혁안들의 대부분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도 큰 틀에서는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31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출마하는 지방의 회원은 총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선관위의 후보등록 거부도 위원재적 2/3의 출석과 과반수로 결정기로 하였다. 후보자의 범법행위에 따른 후보자격 제한은 재판법에서 근신이상의 처벌이나 형법 100만원 벌금형 이상으로 정했다. 교회법 처벌 종료후 10년 경과시나 형법상 형의 실효후 10년이 경과한 이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감독이나 감리사는 임기를 마쳐야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으나 2016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였다. 또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선거공보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의 교회 상황은 임기와 동일한 기간만큼 공개하도록 했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선거중립의 의무자가 일부 빠졌다.(실장,원장) 보칙에 감독회장이나 감독의 임기가 1/2이상이면 각 의회 직무대행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1/2이하인 경우 직무대행이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선거재정은 본부의 지원 없이 입후보자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며, 선거 잔액은 장학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입후보자에게 균등 반환한다. 다만 선거무효가 될 경우 행정책임자는 특정인이나 위원회에 귀책사유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고, 총회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배상할 때까지 직임을 정지한다. 선거위반 벌칙을 강화하여 허위사실유포자의 처벌을 신설하고, 선거소송비용 미납자는 회원권을 정지한다.⁵⁾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되었을 뿐,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요구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의 핵심인 ‘어떻게’ 선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는 차후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의 책임자인 감독과 감독회장을 어떻게 선거할 것인지에 대해 타 교단의 선거제도들을 살펴보고, 현행 감리회 선거제도의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타 교단의 선거제도 일람

(1) 장로교단의 현행 선거제도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총회장직은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따라서 모든 선거활동은 부총회장 선출에 중심을 둔다. 목사부회장 후보는 지역 안배제에 의하여 서부, 서울강북, 중부, 서울강남, 동부지역의 순으로 추천된다. 장로부회장 후보는 목사부회장 후보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된다. 목사부회장 후보는 해당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20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서 뽑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부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현장에서 소개하고 각 5분간의 소견발표 기

5) 조병철,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장정에 대한 안내, 본부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감리회자료 161번, 2016 개정된 장정안내

회를 준다. 투표방식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 득표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일후보의 경우에도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선거는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총회 예산과 후보 공탁금으로 한다. 단, 후보공탁금은 목사 5천만 원, 장로 3천만 원으로 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⁶⁾

②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선거규칙은 ‘통합’측과 같은 점이 많이 있으나 특이한 것은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병용한 방법으로 부총회장과 총회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총회임원은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 추천이 된다. 제비뽑기를 위해서는 여러 색깔의 구슬을 사용한다. 모든 총대가 구슬을 선택한 다음, 후보자가 봉인된 구슬봉투를 열어, 가장 많은 구슬의 색깔을 가진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2인에 대해 전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 직접선거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총회임원으로 선출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며,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자를 확정한다.

입후보자는 발전기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은 7천만 원, 장로부총회장은 5천만 원으로 한다.⁷⁾

(2) 미국감리회(UMC)의 감독 선거제도

연합감리회에서는 감독이 정년제이다. 감독회장이란 직함은 없고, 총감독회의 의장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감독은 다 동등하게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총회에서는 사회만 할 뿐 투표권도 없다. 교단 전체를 볼 때 실제적인 면에서 감독은 각 기관에 참여할 뿐 기관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회에서는 감독이 목사 파송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감리회의 감독은 지역총회에서 선출된다. 미국 본토의 경우, 동북부, 동남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 이렇게 다섯 지역총회가 있으며 해외지역을 위해서는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4년 마다 열리는 지역총회는 각각 다른 수의 감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구비율과 지역의 크기를 안배하여 결정된 것이다. 감독선거의 목적은 그동안 발생한 감독의 공석을 채우는 일이다. 지역총회는 감독을 선출하기에 필요한 백분율을 정한다. 적어도 출석, 투표인원 60% 이상의 표를 얻은 이를 감독으로 선출 할 것을 정한다.

플로리다연회의 경우 연회 감독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은 총대회의에서 총대단장(목회자)가 총대들에게 각자 흠어져 30분 동안 감독후보로 적격자가 누구인지를 기도하게 한 후, 응답받은 후보한 사람을 기명으로 투표한다.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해의 총회는 감독 후보자 없이 참가하기도 한다.⁸⁾

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제100회기 총회 규정 및 해석사례 모음, 2015. PP.22-24

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총회선거규정(2013년 9월 25일 9차 개정), PP.2-7

8) 하중조, ‘미국연합감리교회(UMC) 감독제도의 빛과 그림자’, 감리회개혁특별위원회, 제2회 감리회 개혁 심포지엄 자료집, 2015. 1. P.13

감독의 구역배정은 지역감독협조위원회에서 지역감독회와 상의한 후, 감독들을 그들이 주재할 각 감독구에 배정하여 이를 지역총회에 추천함으로써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3) 대안으로서의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을 제안함

(1)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모델

사실 감리회 내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제비뽑기' 선거제로의 전환은 수차례에 걸쳐서 시도되었지만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제비뽑기 방식이 선거의 타락을 방지할만한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의 제24회, 2006년의 제25회, 2007년의 제26회 입법회의에 3년이나 연속으로 제비뽑기 선거 안이 상정되었으나 번번이 부결되었다.

제26회 입법회의에서 부결된 제비뽑기 선거 안은 직접선거와 제비뽑기 선거를 혼합한 내용이 었다. 감독회장이나 감독에 후보 3명이 나오면, 곧바로 제비뽑기를 한다.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1차 투표를 하게 했다. 예를 들어 5명이 후보로 나올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연회원들이 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 3명을 선정하고, 그 3명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4명 이상이 나올 경우 어차피 직접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탁선거가 재연 될 것이라며 70% 이상의 총대들이 반대하였다. 3위 안에 들기 위해 금권선거를 할 것이며, 3위 후보가 제비뽑기로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선출되면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논리로도 반대하였다.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제비뽑기 선거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로회 합동측의 제비뽑기 선거방식을 참고로 하여 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의 복합방식의 선거제도로의 개정을 추구한다.

(2) '제비뽑기' 선거제도의 한계와 대처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금권타락 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감리회 내에서 주장되었던 제비뽑기 선거제도는 2단계 선거로서 1단계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2단계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직접선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금권타락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명의 후보에 들기 위해서는 치열한 선거운동을 필요로 하고, 선거운동 과정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2단계로 실시하되 1단계에서 자격에 합당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실시하여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제비뽑기로 선출된 3명의 후보자에게는 일정 시간의 정견발표 기회를 준다. 이후 3명을 대상으로 연회 또는 총회 회원들이 감독 또는 감독회장 적격자의 이름을 기명하는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감독 또는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만약 제비뽑기에 응모한 후보자가 1명뿐일 때에는 제비뽑기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감독 또는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

이 방법을 실시하게 되면 제비뽑기를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선거운동이나 금품살포, 상대 비방 등의 혼탁, 타락선거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검증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된 3명에 대해 직접선거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기에 최고 지도자로서

의 권위도 부여받게 된다. 장로회 합동 측의 경우 이미 13차에 거쳐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의 복합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우려사항이 제기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 감리회에서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진다.

단 제비뽑기의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과정과 검증방식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제비를 뽑는 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⁹⁾

3. 연회와 지방회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 현행 연회와 지방회 제도의 제 문제

감리회의 현재 의회제도는 총회 - 연회 - 지방회 - 교회의 4단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개체교회의 의회는 다시 당회와 구역회로 2원화 되어 있어, 실제로는 5단계의 구조이다. 장로회의 경우는 통합과 합동 및 기장이 모두 총회 - 노회 - 교회의 3단계 구조이며, 기성과 침례 및 순복음의 경우도 총회 - 지방회 - 교회의 3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타 교단들에 비해 감리회만 복잡한 단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더구나 연회는 미주특별연회를 포함하면 11개에 이르며, 지방회는 216개에 이른다. 2015년 말 현재 51,328,000명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전국 행정구역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획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재 감리회의 규모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행정구획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¹⁰⁾ 교인 수 1,375,000명의 감리회의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회와 지방회로 인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약화이다. 전체 6,300여 교회의 약 40% 이상이 미자립 상태에서 지방회별 평균 소속교회 29개 정도이다 보니 지방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지역별 규모와 경제의 차이로 인해 지방회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심하여 규모가 약한 지방의 목회자들이 받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회와 지방회의 재정자립도를 확립하면서 지방회 내에서 미자립 교회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연회 및 지방회 규모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9) 제비뽑기에 응모하는 후보자는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받는다. 등록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검증의 절차를 통과하면 후보의 자격을 인정한다.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서 제비뽑기 관리위원을 선정하고 후보들을 검증하게 한다. 관리위원은 3개 신학교(감신, 목원, 협성)에 공동배분하고 위원장은 감독이 임명한다. 관리위원은 여성목회자와, 정8~10의 목회자도 정수 포함시킨다. 관리위원은 후보자들의 신상 및 자격을 교리와 장정에 입각하여 제한할 수 있다. 관리위원은 후보자들의 정견을 서류로 먼저 받아 검토한 후, 정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후보자들에게 의견 개선들을 통하여 조정하며,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서약 받는다. 관리위원은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정견발표를 관리한다. 관리위원은 후보자들의 정신, 신체 등의 건강상을 확인한다.(필요하면 검증된 기관에서 검진 받은 내용을 제출하게 한다.)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는 정견발표문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여금을 기부해야 한다. 기부된 기여금은 등록 이후로 돌려주지 않는다. 기여금은 관리비용으로 최소 사용하며, 기부금의 최종 목적은 개척교회 설립비용으로 사용하며 기여금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오천만원 정도)

연회 또는 총회에서는 선거를 위한 예배 또는 기도회를 하고 제비뽑기를 실시한다. 제비를 뽑는 사람은 후보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 중에 어린아이를 선정한다.

10) 대한민국 행정자치부(www.moi.go.kr), 정책자료, 2016년 대표통계,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현황

2)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를 제안함

① 연회의 광역화 방안

기존에는 연회의 분할은 연회 내의 개체교회 수가 8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350개소 이상, 정회원 200명 이상, 입교인 7만 명 이상이면 가능했다.¹¹⁾ 그러나 제31회 총회에서 연회 및 지방의 분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차후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회의 분할을 위해서는 연회 내의 개체교회 수가 1,5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700개소 이상, 정회원 500명 이상, 입교인은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해졌다. 지방회도 현행 개체교회 수가 45개소 이상, 정회원 20명 이상에서 60개소 이상, 정회원 30명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게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연회와 지방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유지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따라서 연회와 지방회의 역할을 효율화하고, 미자립 상태의 연약한 교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연회와 연회 간, 지방회와 지방회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연회와 광역지방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회의 통폐합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제30회 장단기발전위원회(위원장 임준택 목사)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기인하였다. '선교의 걸림돌이 된 연회와 지방회'라는 소제목의 보고서는 2002년 이후 급속도로 분화 증가된 연회로 인해 연회 간 교인 수 및 재정 등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제30회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연회'를 제안했는데, 1993년의 연회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으로,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동부, 남부, 삼남 등 7개 연회로 하며, 미자립교회가 48%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광역연회는 7개 연회보다 더 적은 수의 연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제31회 장정개정위원회에도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에서 6개의 연회로 통합하는 안이 제출되었다. 개혁특위의 안은 △서울연회(서울전역) △중부연회(인천, 경기일부) △경기연회(중부연회 지역 제외한 경기전역) △남부연회(충남, 전북, 광주, 전남) △동부연회(강원, 충북, 세종시) △삼남연회(대전, 대구, 부산, 울산, 대구, 경북)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삼남연회에서도 △서울+삼남 △서울남+호남 △남부+충북 △중앙+충청 △경기+동부 △중부로의 통합 연회로 확대하는 안과, △서울+중앙 △서울남+경기 △동부+충북 △남부+충청+호남 △중부+삼남연회로 통합 확대하는 안이 제출되었지만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통합 광역화 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비록 제31회 총회까지 과정에서 연회의 광역화 안이 채택되지 못하였지만, 광역화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국내의 10개 연회 간의 인적·물적 자원과 문화적·선교적 가치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총회에서의 소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연회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고, 형평성 있는 행정과 교회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예상할 수 있다.

광역화는 일반 행정에서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의 10개 연회를 통폐합하여 광역화함으로써 연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인 지출을 줄이며, 재정 건전화를 통해 연회 내의 미자립 교회를 응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특위에서 제시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6개 연회로의 광역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11)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2012,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 제3조 연회분할의 요건, P.385

② 지방회의 광역화 방안

연회의 광역화와 함께 지방회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광역화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216개의 지방회별 평균 교회 수는 30개 미만에 불과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회가 세분화되면서 많은 지방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 내의 교회들이 열악한 경우 지방회의 유지에 급급하게 되고, 따라서 지방내 교인들의 영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미자립 교회에 대한 지원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방회 통폐합과 광역화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회가 광역화되면 오히려 감리사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선거과열로 지역과 학연의 갈등이 더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지역이 넓어지고 교역자 인원이 많아져서 친화력이 사라지고, 교역자회의와 지방회를 개최할만한 장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31회 총회의 의결로 지방회의 분화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그것은 현재의 지방회 문제를 법적 강제로 유지하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연회의 광역화에 맞춰 연회별로 약 20개 정도의 지방회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6개 연회로의 광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국에 약 120개의 지방회로 광역화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회 별로 평균 50개 이상의 교회 수를 확보하게 되고, 지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자립 교회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다.

4. 목회자의 정년 탄력제 도입을 제안함

1) 현행 목회자 정년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안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며, UN기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과거에는 노인으로 분류되던 60대 연령층은 이제 노인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목회자가 70세를 기점으로 정년은퇴를 하게 되는 교단에서도 70세 이상의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은퇴 목회자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회원으로 허입하는 목회자들의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며, 특히 목회 경험이 풍부하고 목회적 역량이 검증된 노령 목회자들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신교의 교단들은 대체로 70세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의 경우는 정해진 정년이 없고, 전통에 따라 75세가 되면 자원하여 은퇴를 하고 있다. 물론 불교에는 정년 자체가 없다. 개신교의 경우에도 기하성이나 장로회의 백석, 대신 등에서도 정년의 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0세 정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 교회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70세 정년의 탄력제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인 수 100명 미만의 교회에 한하여 인

정해야 한다. 정년 탄력제가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70세 정년의 탄력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목회자는 정년 2년 전에 당회에 정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당회에서는 매년 신임투표를 통해 1년씩 최고 5회에 걸쳐 정년 연장을 허락할 수 있게 한다.¹²⁾

개체 교회에서 정년 연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비록 70세 이상으로 은급비 수령 대상자가 될지라도 공식적으로 은퇴하기 전에는 은급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70세 현재 근속연수가 40년이 안 된 목회자의 경우에는 은퇴까지 계속하여 근속연수를 인정해 주도록 한다.

담임 목회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개체교회 당회에서 결의되어 연회로 제출되면 연회에서는 미자립대책 및 교회실태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감독이 허락한다.

2) 목회자 정년 탄력제의 기대되는 효과

정년 탄력제의 실시는 목회자의 정년 연장을 위한 꿈수라는 지적을 하거나, 교역자 수급과 젊은 교역자들의 임지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목회자 수급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와 시행 범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순차적으로 시행하면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¹³⁾

목회자의 정년 탄력제의 시행으로 나타날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시골이나 중소도시 미 자립 및 중, 소형 교회 담임자들의 은퇴와 노후준비에 시간적인 여유와 생활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목회자의 은퇴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은급비의 지급 총액이 절약되어 은급재단의 자금 고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70세 이후의 목회자들에게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담임 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는 시골이나 중소도시 미 자립 및 중, 소형 교회들이 훌륭한 목회자를 안정적으로 청빙할 수 있다.

넷째, 사회생활을 하다 늦게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들에게 최대 5년의 목회기회를 더 제공함으로써 은퇴 후 5년분의 은급비를 더 지급받아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100세 시대의 고령사회를 맞아 목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은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한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볼 때 감리회에서 보다 공격적인 목회자 노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 탄력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12) 담임 목회자의 정년 연장을 위한 당회는 교인 수의 2/3이상 출석과 출석 교인 수 2/3이상의 찬성을 교리와 장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13) 제31회 총회에서 각 신학대학교 교역자 수급 관련 대학원 통합을 목적으로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됐다. 목회대학원 통합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진하며 2018년 12월까지 통합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토록 하고 있다.

또한 3개 신학대학교의 신입생 지원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목회자 수급 문제는 머지않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제2분과 제도개혁분과에서 지난 1년 동안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 중 3대 개혁안으로 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의 ‘제비뽑기 후 직선제 선거의 혼합 선거제도’,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 방안, 그리고 목회자 정년의 탄력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중 제비뽑기 선거제와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 주장은 이미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개혁안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채택이 무산된 것은 제비뽑기 선거제가 직선제 선거의 금권 타락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비뽑기 후 직선제를 실시함으로써 금권과 학연중심의 파당주의 및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을 충분히 홍보한다면, 제32회 총회에서는 충분히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회와 지방회의 광역화 방안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현재 너무 세분화된 연회와 지방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광역화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역시 채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자의 정년 탄력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담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면 감리회의 목회자들에게 자긍심과 노후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보여진다.

감리회의 미래를 준비할 중차대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연구하여 준비된 개혁안들이 총회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2분과의 제도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무리 한다.

‘하나’의 감리교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감리교회

2016~2020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문제제기

이번 제 32회 총회 장단기발전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계속된 감독교장 선출문제로 야기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급속한 외적 팽창을 이룬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와 확연하게 침체현상을 보였다. 출산율이 떨어 자연스럽게 교인수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신뢰를 잃어 교인들이 이탈했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 교회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주요 6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총회보고서를 자료로 지난 11년간의 목사, 교회, 교인수를 비교한 통계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 수는 늘고 교인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감리교회의 경우 2010년 158만 7358명을 최고점으로 교인들이 계속 줄어들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1000명씩, 2013년에는 3만명, 2014년에는 8만명이 줄어들어 교인감소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왜 교인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를 이탈했다고 하여 신앙을 포기했을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형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예배만 다니는 경우와 신앙은 포기하지 않지만 교회에 출석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른바 ‘가나안’(거꾸로 하면 ‘안 나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교회 나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성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수가 줄었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도덕적 혹은 영적 권위를 상실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하겠다. “한국교회 미래지도2”에서 최윤식 박사는 개인주의 신앙,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닌 감성적 터치에 위로받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는 등 세속화된 영성, 깊이 없는 영성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2007년 발행된 장단기발전위원회 백서를 보면 “2016년 제 32회 총회에서 선출된 감독교장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조성된 개혁운동에 힘입어 ‘새로운 감리교회를 위한 교단 개혁’을 천명하는 시간이 오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 “2018년 제 33회 총회를 통하여 교단개혁운동에 동참하는 연회감독들이 선출되고,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 ‘개혁’헌법안이 2019년 10월 총회에 역사적으로 통과된다. 드디어 2020년, 온 나라를 뒤덮었던 ‘부산 하계올림픽’의 열기가 다 가시기전, 10월에 개최되는 제 34회 총회에서 드디어 ‘개혁헌법안’에 의하여 새로운 감독교장이 선출된다, 그러므로 5그룹 “감리교 미래상 연구”명칭을 “2020 새 감리교회 프로젝트”로 명하기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감리교회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미 10여년전에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를 선언(?)하는 표현을 백서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예상처럼 감리교회는 지난해 입법총회를 통한 장정개정으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고,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무언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기회를 맞이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신앙(Justification, 오직 믿음)’과 ‘로마카톨릭의 선행(Sanctification, 행함)’을 하나로 종합하여 ‘믿음’과 ‘행함’의 조화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고, 본부와 개체교회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하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감리교회’를 제안한다. 시스템이란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유기적 모임’으로 감리교회의 시스템을 본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연회 및 지방회, 개체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래전부터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전도환경을 회복하려고 로고, 심볼, 엠블럼 등을 교체해 보려는 노력을 해왔고, 올해에도 감리교 통합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외적인 환경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해 왔지만, 공감대 형성의 부족과 통합브랜드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되어 한계만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감리교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감리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감리교 통합브랜드로서 심볼과 로고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의 감리교회’를 홍보하고, 평신도단체들이 참여하는 감리교회 비전을 창출하며 감리교본부의 각 국이 해야 할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감리교회를 제안한다.

실천과제

1. 표준목회계획

존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이 성공한 비결중 하나는 ‘규칙적’이었다는 것이다. 외부의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은 철저한 ‘규칙’에 있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해 가는 실천과정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웨슬리는 신학적 명제들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가?하는 실질적인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궁극적 관심은 ‘하늘 가는 길’이었다. 1746년 “Preface to Sermons on Several Occasions”에서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 웨슬리는 평생을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여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매일의 삶을 살았다. 이런 삶이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기에 웨슬리는 공동적 훈련(communal discipline)과 사회적 훈련(social discipline)중요시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완전케 이르기 위해서는 홀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만들어 가는 공동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런 공동적 훈련은 공동체에 적합하도록 사람을 연단시키는 기능적 훈련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와 너’가 더불어 걸어가는 구원의 순례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규칙’은 형식에 매이는 율법주의가 아닌 구원의 역동적인 삶을 체험하고 완성해 가기 위해 필요한 실천덕목이었다. 이런 웨슬리의 신앙정신이 오늘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진리의 힘, 영적인 힘, 도덕적인 힘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가 가진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

문에 영적권위를 잃어버리고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해 위기상황에 놓인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는 다시 아니, 새롭게 웨슬리의 신앙정신을 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준목회계획은 그것을 돕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 표준 목회 계획의 기준 - 교회력과 성서일과

1) 교회력

이미 교회는 교회력을 가지고 있다. 부활절, 성탄절, 성령강림절, 주현절 등을 알고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절기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교회현장에서는 연속성이 무시되고, 닥쳐진 절기를 지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야말로 스쳐지나는 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력을 제대로 이해하여 예배의 역동성을 회복하면 주일예배는 풍성해 질 것이고, 교인들의 삶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교회력은 예배력에서 온 말이다. 시작부터가 예배의 축제와 관련된 것이다.(박근원. 교회력과 목회기획) 교회력은 시간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에서 예배에 반영하며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기독교의 예배는 시간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중요한 점들은 2~4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시간을 구성하는 방법에 드러난다. 초대교회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증거된 신앙의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신앙이었다.(남호,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교회력을 통해 자연스러운 신앙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부활이요, 새로 태어남이고 식사시간은 성만찬이 시간이 되고, 한 낮은 창조적인 활동의 시간이며 잠자는 시간은 생명의 품인 하나님 안에서 쉬는 평화의 시간이 된다. 교회력은 바로 이런 숨결을 따라 가도록 짜여진 것이다. 주일은 부활의 날로서 힘찬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을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매주 목요일은 지친 삶을 이끌고 나와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겨 주시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세족의 날이 된다. 금요일은 고난의 날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날로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날이다. 이것이 한 해의 삶으로 구성되면 기다리는 신앙으로 지내는 대림절로, 빛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과 주현절로, 부활을 향한 순례의 길 무지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순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부활신앙을 간직하는 부활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성령강림절, 감사와 생명의 찬양이 넘치는 창조절을 만날 수 있고, 신앙은 순환하는 절기를 통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 연속성이 있는 목회기획을 담은 표준목회계획을 제시한다면 목회에 활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회복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2) 구체적인 제안

a. 대림절

- ① 교회력의 시작이므로, 교회력에 대한 의미를 주보나 설교를 통해 알린다.
- ② 가정과 교회에서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시간을 갖는다.
- ③ 초를 제작하는 강습회를 가정 단위로 실시하고 가정마다 매주 초를 준비하고 켜고 가족들이 모여 기다림의 성경구절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

b. 성탄절 :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달라진다.

c. 사순절

① 부활절에 세례받기 위한 신앙교육 실시 / 재의 수요일 회개행전기록 / 종려주일- 행진시간

d. 부활절 : 축제예배

e. 성령강림절

f. 창조절 : 지역사회목회 /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활동들

3) 성서일과

교회력의 주제에 따라 일정 주기 안에 성경 66권을 두루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매일 성경 읽기표를 의미한다. 라틴어 Lectio(독서)에서 온 말이다. 교대 유대교때부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초대교회 시절 요한크리소스톰 성서일과, 7세기경 비잔틴 성서일과 등의 전통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통을 따라 카톨릭과 성공회, 루터교 등 개신교 성서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공동성서일과(Common Lectionary)’가 나왔고, 1992년 ‘개정된 공동성서일과(Revised Common Lectionary)’수정보완된 개정판이 출판되었고, 이 성서일과를 세계의 여러 나라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 수정된 것은 2005년 개정판이다. 성서일과를 사용하면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던지 같은 말씀을 보게 된다. 성서일과 3년에 성경통독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A,B,C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성서일과를 사용하면 매일 작은 분량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는 유익이 있고, 무엇보다 예배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 매주 설교본문이 미리 공지가 되는 것이기에 설교에 대한 집중도를 높힐 수 있고, 목회자에게는 설교표절을 유혹을 극복하게 하며, 목회자 마음대로(감정대로) 뺄어 맞추기식 설교를 방지할 수 있다. 성서일과를 잘 활용하면 새벽기도회가 풍성해 질 수 있고, 예배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 구체적인 제안

①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처럼 새벽기도회와 목상을 돕기 위한 매일성서일과 해설서를 월간 잡지형태로 혹은 분기별 잡지 형태로 발간

B. 교회력에 따른 목회기획의 예시

2007년 발행된 장단기발전위원회 백서는 ‘웨슬리 전통의 메도디스트 영성생활’을 통해 웨슬리의 영성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메도디스트의 영성생활을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실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감리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웨슬리의 성화론에 있다. 웨슬리의 구원은 핵심은 성화(Sanctification)이다. 웨슬리는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산성수훈을 설교한 부분에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다,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도디스트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어떤 새로운 종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성결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2)라고 주장하였다. 웨슬리는 성육신적 요소(Incarnational Factor)로써 세속성에서 분리된 성별의 힘을 갖고 세속을 찾아가는 성육신의 참여, 곧 사랑의 적극적 행위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성화라고 본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영성생활, 목회는 삶이었다. 독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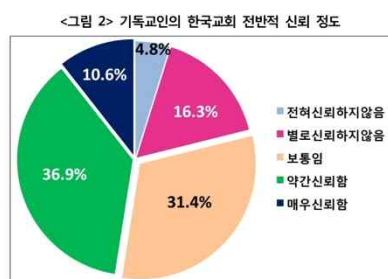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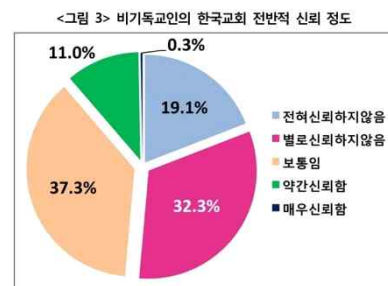
결핍기와 묵상, 기도생활 등 성결을 통하여 내면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 것이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 신앙의 증거로 나타나야 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금욕적 영성이란 가장 작은 자들에게 가장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채택된 특별한 수단이었다. 이런 웨슬리의 삶을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해 목회에 담아내는 표준목회계획을 제안해 본다.

1) 구체적인 제안(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합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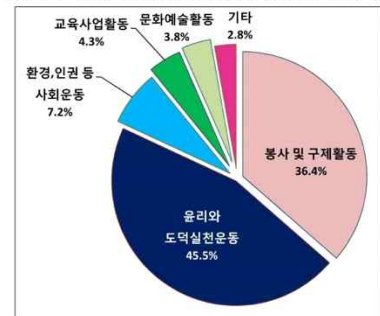
- a. 1월 : 시작은 침묵함으로-영성중심 목회, 침묵기도, 새벽부흥회, 성경통독 성회
- b. 2월 : 사순절 - 세례교육, 재의 수요일 회개행진, 종려주일 행진
- c. 3월 : 부활절 - 축제예배
- d. 4월 : 대심방
- e. 5월 : 가정세우기 목회
- f. 9월 : 창조절 - 사회복지의 달(사회복지종사자 초청행사)
- g. 10월 : 창조보전 행사
- h. 11월 : 지역사회목회(따스한 겨울나기와 연결하여 실시)
- i. 12월 : 대림절 및 성탄절(대림절 초 준비하기)

지역사회목회를 위한 제안

2013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바른교회아카데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협력하여 진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의 자료를 보면, 비기독교인의 한국교회 전반적 신뢰정도(그림3)에서 절반이 넘는 5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신뢰보다는 신뢰하지 않거나 보통이라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그림2)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봉사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 많았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많음에도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종교는 기독교라고 많은 분들이 답을 하였다. 기독교에서 별이는 많은 활동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활동이 봉사이기 때문이다. 사회 복지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아도 기독교인이 두드러지게 많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도 대부분이 교회이거나 기독교관련 기관이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덕실천운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봉사 및 구제활동이라고 답한 분들도 35%나 차지했다. 봉사활동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교회이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는 대답이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교회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바로 봉사와 구제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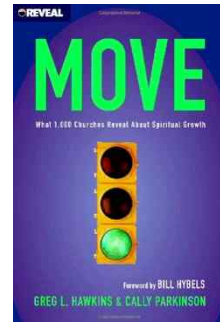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활동



위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는 복음에 대한 인지도가 16.6%였는데, 5년후인 2013년엔 31.5%로 상승하였다. 교회가 그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에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졌다. 그런데, 교회 출석율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감소하였다. 그것도 ‘급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만큼 낮아졌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출석율은 감소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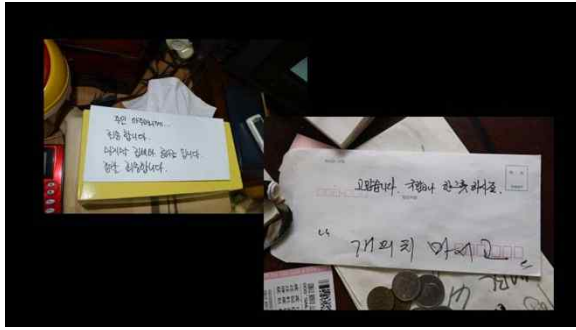
진정한 영적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 봉사!

열린예배, 불신자를 위한 구도자에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윌로크릭교회는 성장의 대명사로 알려진 교회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스스로 영적성숙도를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3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영적성숙마저도 ‘숫자’로 측정해왔던 교회성장에 관한 헛된 모습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Reveal”이라는 책을 통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여 성장했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영적성숙은 없었다며 담임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는 모든 것이 실패했다, 잘못되었다. 이제 백지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7년에 걸쳐 1,000여개 교회와 25만명의 성도들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MOVE”라는 책을 통해 발표하였는데, 교인들의 영적성숙을 이끌어낸 최상위 5%교회의 특징을 ‘지역공동체목회’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밝히는 ‘지역공동체목회’는 목회자가 지역공동체의 목사역할을 하는 것과 교인들이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진정한 영적성장은 교회나 목사,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것임을 분명한 결과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영적성장은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사회의 안전망과 관계망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사회의 현실에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숙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 “복지”(반드시 봉사와 연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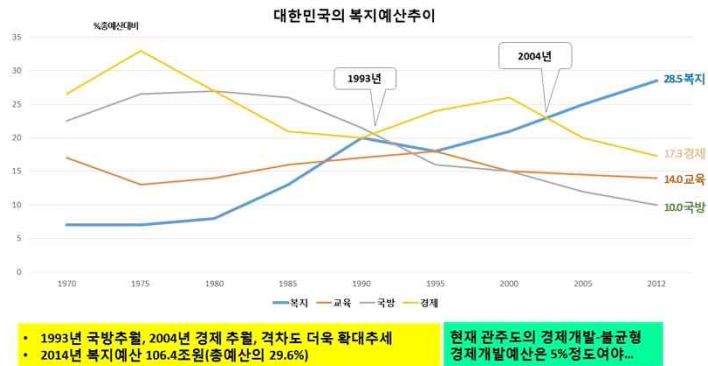
오늘 한국사회의 화두는 ‘복지’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39.5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OECD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위다. 2014년에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주변 이웃들도 이들이 위기가정이라고 눈치 채지 못했다.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버렸다. 그달치 월세와 공공요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남긴 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면 안되겠다고 사회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법까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법이 공포되던 바로 그 날 홀로 사시던 어르신 한 분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 수고할 사람들의 식사비용과 공공요금을 봉투에 담아 편지를 남겨놓고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 경제적 빈곤이 일차적 이유다. 그러나, 생명을 버리도록 내버려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관계망이 턱없이 부족함을 증명해준다. 이웃이 어떻게 사는 지 서로 조금만 돌아보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송파 세모녀사건이나 어르신의 자살사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1993년에 국방예산을 추월하였고, 2004년에는 경제예산을 추월하였으며, 2013년에는 100조, 2014년에는 106조에

달하여 총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은 115조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복지를 위해 편성되어 있는데도 2011년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OECD"한 눈에 보는 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복지예산이 100조가 넘는 시대이지만

2014년 기획재정부가 밝힌 복지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공적연금, 주택건설, 보훈예산이 60%나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지원 등)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 전달체계를 보면 공공 447개, 민간에 11개 유형의



11,323개의 대상별 전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공중심인데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복지수혜자와 복지제공자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중복지원 혹은 누락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자 만들어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은 부정수급자를 가리는 시스템으로, 지원에 대한 조사자료 시스템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예산은 연간 8조원 정도인데, 이 중 부정수급액수는 7천 만원 수준이다. 7천 만원 때문에 도움을 위해 만들어진 행복e음이 부정수급을 가려내고 지원에 대한 조사자료 시스템으로 전략해 버리고 만 것이다. 바로 이 시스템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소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생활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부정수급이나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정말 유명무실한 부양의무자) 탈락된 사람들이나 아예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기준으로 415만명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2014년 복지관련예산/기획재정부

공공복지지출(OECD) 최하위



복지문제의 해결, “민관협력복지전달체계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서도 복지는 중요한 이슈였고, 취임후에도 복지는 내려놓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복지체감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중심의 전달체계와 복지를 위한 재정부족, 재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평가’와 ‘지도감독’ 등 일방적 관계가 복지문제를 풀어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의 자주 바뀌는 인사시스템은 공무원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이끌기에 자율성, 창의성, 혁신성의 부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전달체계, 복지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을 쏟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변화



한국교회가 진정한 영적 성장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기회가 바로 “복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교회성장을 해왔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회는 더 많은 봉사와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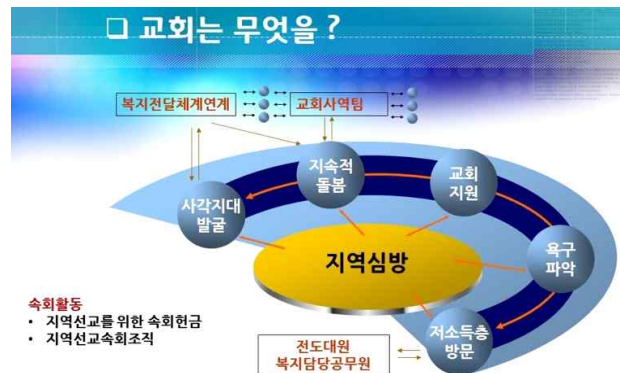
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세상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는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무엇을?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어느 기관보다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원하는데만 그쳐진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큰 교회들의 참여만이 눈에 띄인다. 게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명절이나 연말이면 김치나 쌀을 구청이나 동사무소 마당에 쌓아놓고 전달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말단공무원은 살짝 힘들어 한다. 그것을 배달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전달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공무원들은 차량을 동원하여 대상자를 모시고 와야 하고, 다시 물건과 함께 모여다 드려야 합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많은 분량이 집중되어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다. 공무원들의 활동방식도 일방적이어서 교회도 힘들어 한다. 그런데, 교회 역시 다르지 않다. 쌍방향으로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개교회의 활동- 지역심방을 실시한다.

교회가 바로 이부분을 도울 수 있다. 교회는 그 규모를 떠나서 심방대원도 있고, 전도대원도 있다. 전도를 위해 전철역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마실 것을 준비하여 나누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심방하는 전도대를 조직하여 복지담당공무원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해주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가정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장과 의논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주 규칙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동주민센터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다른 어려운 이웃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이렇게 드러난 필요와 고민을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주민센터와 함께 논의하게 되면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 준비되고, 동주민센터와 교회, 지역주민과 교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협력관계가 될 것이다. 협력이 어려울 것 같지만 공공부문에서 부족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봉사대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되므로 동주민센터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어 관계가 잘 형성되면 그야말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 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공공부문에 관한 정보를 어느 곳보다 우선하여 교회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아쉬움만을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나누는 관계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명단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기에 접촉하기 쉽고,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역의 소외된 분들을 규칙적으로 심방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을 속회를 통해 모아가는 활동은 교인들끼리의 활동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혹은 통장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에 '그들 만의 세상' 혹은 '그들 만의 잔치'라는 오해를 극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동주민센터와 지역의 활동가들과 지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리가 되므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함께 기뻐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활동은 일로 크릭교회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사역자들의 몫으로 돌리면 안되고 목회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영적지도자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지역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회 본부의 구조변화

사회부문을 담당할 부서의 재편 혹은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가 출발하면서 고백한 교리적 선언 제7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웨슬리의 신앙정신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감리교회의 사회선교의 정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고백이다. 웨슬리는 ‘성서적 구원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구원은 미래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현재적임을 강조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로 흔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속을 의미하는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음 저 편에서나 혹은 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먼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를 통해 네가 소유하는 현재적인 것이다.”

18세기 영국 상황에서 웨슬리의 올더스게잇의 뜨거운 중생체험 즉 개인구원의 종교적 체험을 광산과 형무소 선교를 통한 사회개혁 프로그램과 연결시킴으로써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 감리교 전통인 것이다. 18세기에 일어난 메도디스트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은 “실제적인 기독교(Practical Christianity)” 또는 “실제적인 종교(Practical Religion)이라는 것이다. 실제적인 기독교는 교리를 실제생활에서 실천하여 그 교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 교리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을 선행이라고 믿었고, 선행은 구원의 외적증거라고 여겼다. 이런 웨슬리의 신앙정신은 미국과 한국의 감리교회의 모든 활동의 근본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1930년 감리교회의 출발과 함께 채택된 사회선언은 교리적 선언의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감리교회는 출발과 함께 총회 중앙부서에 사회국을 설치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자치교회를 선언하고 출발한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감리교신앙전통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1966년 교단정치파동으로 인해 사회국이 없어졌다가 1970년 온영선교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선교국내에 사회정책부가 세워졌고, 1980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이 고조가 되자 1988년 감리교사회복지의료선교협의회에서 사회국 설치를 건의했다. 그 이후 1995년 평신도국이 사회평신도로 개편되면서 선교국의 사회복지사업이 사회평신도국으로 이관되었다.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가 사무국 산하로 이관되고, 선교국 안에 사회선교부를 두면서 사회관련 업무가 3개 부서로 분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사업의 주체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초기 한국감리교회의 사회사업은 상황 때문이었지만 외국선교사 의존도가 높았다. 그 이후 대부분의 사업기관이 한국교회에 이양되면서 이를 넘겨받은 한국 교회가 사업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 시킨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선교부 재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거나 기관과 재산들이 개인 혹은 비감리교인 소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감리교회의 사회사업은 외부 원조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적’ 교회정치상황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감리교회에는 사회사업의 유기체적 연합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본부 조직에도 3개국에 흩어져 있고, 사회복지법인과 기관들도 따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2016년 초에 은평구의 한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와 비장애 통합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과 미숙한 처리는 지자체로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에는 향후 10년간 위탁을 주지 않겠다는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위기로 번지기도 했다. 감리교회의 전통을 살리고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 신뢰를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을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

신학교육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장단기발전위원회 제4분과는 2015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제4분과는 신학교육 향상 및 목회자 수급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였다. 그동안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평신도 교육시스템을 중심으로),’ ‘여성 지도력과 교회의 미래,’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역자 수급 및 신학교육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신학정책 및 목회자 수급 대책,’ ‘협동목사 양성에 관한 장정개정의 필요성과 그 대안,’ ‘연회별 멘토링 (Mentoring) 제도의 도입,’ ‘평신도 전문 인력의 발굴 및 양성,’ ‘통일과 다문화 시대를 위한 신학 교육의 다변화’ 등등과 같은 주제와 제안들을 논의했다. 2018년 12월까지 모든 준비를 갖추기로 결정했던 ‘통합목회대학원’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제출하는 문제 역시 논의했다.

이와 같은 주제들과 제안들을 토론하면서 얻은 결론 중의 하나는 감리회 소속 신학교들과 연회의 신학교육 및 평신도 교육, 그리고 목회자 수급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4분과는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에 신학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과 ‘통합목회대학원’ 신설에 대한 3개 신학대학교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첨부된 질의서 참고할 것). 필자는 3개 신학대학교의 응답에 대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실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추후 제4분과가 담당한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몸 말

A. 신학교육 현황 (학교 분석은 가나다 순)

1.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 분석

a. 입학생 현황

감신대의 답변서에 의하면 학부는 지난 5년 동안 2.2-2.5 대 1의 경쟁률에 평균 성적은 3.3 - 3.6 등급의 성적을 보였다 (수시 지원자 현황). 그러나 정시 지원의 경우, 평균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자의 성적은 점차 하향하는 현상을 보였다. 감신대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에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정시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1.26 대 1 정도이며, 최근에는 미달현상이 발생하여 후기 모집을 통하여 모집정원을 충원하고 있다.

목원대의 답변서에 의하면 2016년 최종 입시 경쟁률은 수시 3.38 대 1, 정시 2.6 대 1이었다. 2015년에 비해 경쟁률은 타 학교에 비해서 증가하였다(190%).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신입생 전원에게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 점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지원자의 성적은 최고가 1.5 등급이고, 평균 3-5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협성대의 답변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의 평균경쟁률은 3 대 1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신

입생을 별 문제없이 100% 충원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경우, 내신과 수능 등급은 평균 5-6 등급이며 6 등급이 넘는 신입생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현황 파악에 의하면 3개 신학 대학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는 지적 수준을 갖춘 신학생들을 매년 모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별 학력 수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신학교들은 모두 우수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

3개 신학교가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학들의 입시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고 대학입학정원이 2018년부터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신학교의 지원 학생수 감소는 교회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세가 이미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신학교 지원자의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 사항이다.

필자는 앞으로 신학생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극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주요 관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생존의 관점에서 볼 때, 점점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제약 조건을 뛰어 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조건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b. 졸업생 현황

3개 신학교의 보고서는 최초 입학한 신입생 모두가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타 대학교 입학 및 편입, 진로에 대한 고민, 건강상의 문제, 유학 등의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소명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다른 학과로의 전과, 적성 불일치, 전과를 목적으로 신학과에 입학한 경우(형성대의 경우, 소수의 학생이 존재) 등등이다. 최초 입학생 모두가 탈락자 없이 졸업을 한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이며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감리회가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 또는 다른 학교의 타 학과로 전학을 가거나 전과하기 위해 신학대학이 이용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신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c. 졸업생 현황 파악 및 지원

3개 신학교는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가 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3개 신학교가 졸업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졸업생의 현황 파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학교가 목회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졸업생들이 수련목회자나 간사, 전도사, 교육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3개 신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재학 중 사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졸업 후의 진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가 모든 졸업생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자는 신학교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생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문제는 신학생의 수급의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필자

는 생각한다.

2. 교과과정 분석

일반적으로 신학교의 교과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천 두 부분으로 나뉜다. 3개 신학교의 질의응답서는 자신들의 학교의 구체적인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문항들 중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와 관계된 현장 실습 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목원대의 경우, 교양인문 영역과 인접학문 영역에 대한 포럼, 세미나 개최 등 간학문적 교류를 통해 신학생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성경시험경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성경지식 함양을 꾀하고 있으며, 종합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부전공’ 제도를 제공하고 미래 사역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교회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현장 목회자’를 초청하여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목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협성대는 신학생과 수련목회자의 성경지식부족에 대한 목회자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며 성서학과 성경지식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목회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문제를 성서학 교수들과 현장 목회자들이 공동 집필할 것을 제시한다. 협성대는 ‘신학교육의 현장성’ 부족에 대한 목회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개설된 강의에 의하여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2-4학기동안의 ‘목회실습’ 과목을 통해서 현장 목회자를 초빙하여 현장교육 위주의 목회실습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결론적으로 각 신학교마다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의 목회 현장 실습은 현장 목회자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신대는 질의 응답서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였으므로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신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회 현장 실습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역을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 것 이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필자는 목회와 강의를 병행하면서 목회현장의 목회자들로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할 교육전도사 또는 간사, 그리고 교육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21세기의 신학생은 20세기의 신학생과 다른 소명의식과 태도에 있는 듯하다.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지만 신학생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신학생들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적은 사례비를 제공하면서 하인이나 종과 같이 처우한다고 비판을 한다. 그런 이유로 많은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로 자신들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나름대로의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신학교의 제한적 현장실습교육이 일선 목회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

신학교의 목회현장 교육이나 실습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우선, 신학교에 초청되어 목회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목회자의 자질 문제

가 중요하다. 주로 규모가 있거나 특이한 모회를 하는 모회자들이 주로 초방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자와 특수 모회를 하는 모회자만이 자격이 있는지는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여러 학위 취득 여부와 취득 학위의 진위여부와 자질도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모회실습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의 모회자의 자질과 자격도 중요한 요인이다. 모회자는 신학생을 예비모회자로 여기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멘토(Mentor)가 되어야 한다. 통과의로 신학생들의 교회실습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통과의로가 아닌 효율성 있는 모회현장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모회현장 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교회의 담임모회자가 적절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멘토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만 모회현장실습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3. 신학교육 발전 방안

a. 현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감리회 소속 3개 신학교의 신학교육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재의 3개 신학교를 주 신학교육 현장으로 삼고 각 연회에 소속된 신학원에서 예비 모회자 후보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신학교육과 관련된 교과과정은 해당 신학교와 신학원이 교단과 모회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감리교단과 모회자들과의 갈등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회자 수급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 새로이 입학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학정원을 유지하며 각 신학교와 신학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오래전부터 지적되었고 지속되었던 예비 모회자 과잉 공급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b. 모회대학원을 통합하는 방안(가칭 ‘통합모회대학원’)

두 번째 방안은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모회자를 양성하는 모회대학원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실행부는 ‘통합모회대학원’의 신설에 대한 제반준비를 2018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총회에서 모회대학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결정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 (44.4%); 2) 교역자 수급 조정 (37.3%).

28회 장발위백서에서는 신학대학통합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① 3개 신학대학 학부 과정은 그대로 두고 신학대학원만 한 학교로 통합 -51.2%
- ② 하나의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하되 그 학교에서는 학부 신학과 과정을 없앴 -28.4%
- ③ 기존의 3개 신학대학원 외에 따로 통합대학원을 교단에 설립 -15.2%

위의 방안들 중에 미래의 모회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세 번째 안이었고, 세 번째 안이 지난 총회에서 채택되어 확정되었고 실행을 앞두고 있다.

3개 신학교 중 목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는 ‘통합모회대학원’의 설립을 반대하고 현 시스템을 유지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것이 감리회의 부흥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새로이 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 대학원 과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한국의 교육정책의 변화에 역행하는 방안이며 현실성이 매우 떨어

어진다고 주장한다. 지역을 나누어 목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 신학교를 설립했던 정통성과 역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의견(목원대)도 제시되었다. 한편, 감신대는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을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 신학교의 시스템을 변경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감신대의 보고서 중 ‘감리교 통합대학원 기회안’을 참고하기 바람).

III. 나오는 말

필자가 속한 장단기발전위원회 제4분과는 3개 신학교에 신학교육 향상 및 목회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서를 발송했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필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3개 신학교는 각자의 설립 철학에 맞는 신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3개 신학교는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신입생을 모집하여 신학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목회 현장의 요구에 맞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신학교육 향상과 목회자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신학교가 교단의 최근 정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부분 찬성을 동반한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3개 신학교는 현 신학교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약간의 조정을 통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개 신학교의 염려와 제안을 ‘통합목회대학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세심하게 고려해봐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3개 신학교의 의견을 재고할 경우,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은 시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3개 신학교의 주장과 제안은 목회자수급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가를 생각하면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현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경된 기획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늘어만 가는 목회자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신대의 기획안의 경우가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회학 석사(M.Div) 과정 자체는 전공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신학 석사(Th.M) 과정을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방안이다. 또한 감신대의 기획안은 목회학 석사 과정은 자체가 굳이 전공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석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 중에 ‘통합목회대학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목회자 후보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3개 신학교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학부 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면 ‘학연으로 인한 갈등 해소’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감신대의 기획안은 학연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밥그릇 싸움의 연속’ 또는 ‘나눠먹기식 접근’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통합목회대학원’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보곤 했다. 의견을 물었던 모든 목회자들이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에 대해서 단호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학연갈등과 목회자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이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비록 총회에서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한 신학교육을 추구할 것인지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을 총회 결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결

정된 중요한 사항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약 ‘통합목회대학원’ 설립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교단 차원에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Task Force Team)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3개 신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다음 쪽부터 3개 신학교의 질의답변서를 첨부합니다. 질의답변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수신자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

(경유) 기획홍보부, 장발위 4분과

제 목 **감리교 신학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협력 요청 회신 건**

1. 교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교단 행정기획실로부터 ‘감리교 신학교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1부

대 학 원 장
(직인생략)

과장 김흥호

교무처장 이성림

대학원장 김영래

총장 박종천

협조자

시행 대학원교무-91 (2016. 6. 09)

접수 2016. . .

우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

/ www.mtu.ac.kr

전화 02-3619-239

/ 전송02-3619-298 /

hhkim@mtu.ac.kr

/ 비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1. 최근 5년 동안 각 신학교에 입학과 졸업한 학생들(대학원 포함) 현황입니다.

(1) 최근 5년 동안 입학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자가 증가 또는 감소했습니까?
지원자가 감소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가) (학부) 수시 지원현황 (2012 ~ 2016학년도)

학년도	지원자수	모집인원	경쟁률
2012	284	120	2.37 : 1
2013	307	120	2.56 : 1
2014	326	140	2.33 : 1
2015	287	130	2.21 : 1
2016	315	130	2.42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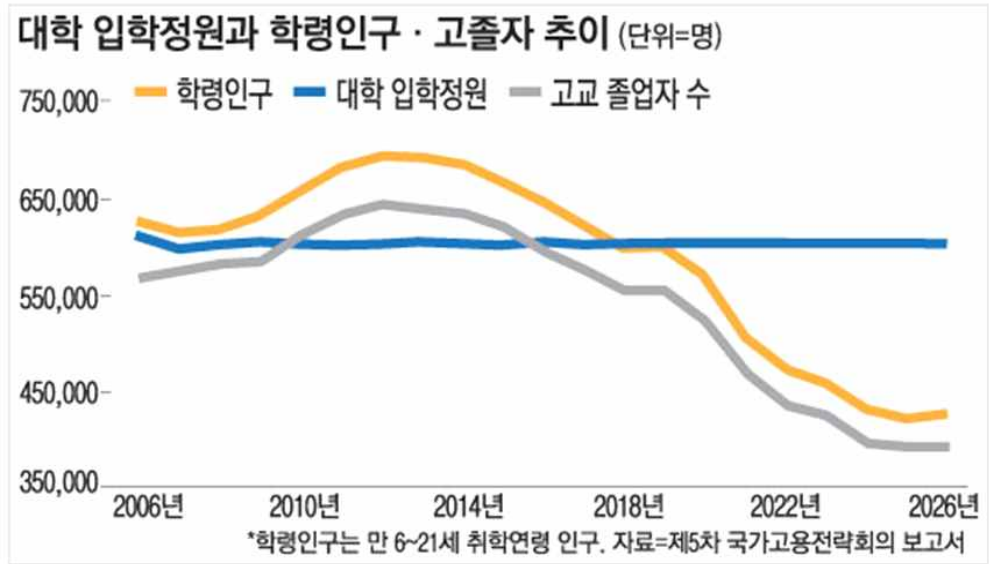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학부의 수시경쟁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2.2~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가 2016년 소폭 증가하였다.

(나) (학부) 정시 지원자 현황 (2012 ~ 2016학년도)

학년도	지원자수	모집인원	경쟁률
2012	146	96	1.52 : 1
2013	209	80	2.61 : 1
2014	88	60	1.47 : 1
2015	121	72	1.68 : 1
2016	108	72	1.50 : 1



정시 지원자 성적현황은 학생부 및 수능점수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수시모집 지원 증가로 상대적으로 정시 지원자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입시환경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원자 감소 요인 중 또 하나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대학의 문제지만 특히 신학대학의 경쟁력 감소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학년도부터 고교졸업자수 및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시점이며, 이로 인해서 본교로 지원하는 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원)** 지원현황 (2013 ~ 2016학년도)

2013학년도								
과 정	지원과정		모집 정원 (T/O)	지 원 자				경 쟁 률
				최초	추가	후기	전체 지원자수	
대 학 원	박사과정 2년 (Ph.D.)	신학	15	17	-	-	17	1.13 : 1
		상담						
		영성						
	석사과정 2년 (Th.M.)		47	53	-	-	53	1.13 : 1
신 학 대 학 원	석사과정 2년 (Th.M.)		146	71	-	-	199	1.36 : 1
	석사과정 3년 (M.Div.)			128	-	-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 3년 (M.Div.)		50	56	-	-	56	1.12 : 1
합 계 (정원내)			258	325	-	-	325	1.26 : 1

2014학년도								
과 정	지원과정		모집 정원 (T/O)	지 원 자				경 쟁 률
				최초	추가	후기	전체 지원자수	
대 학 원	박사과정 2년 (Ph.D.)	신학	5	3	-	3	6	1.2 : 1
		상담	10	18	-	-	18	1.8 : 1
		영성						
	석사과정 2년 (Th.M.)		47	60	-	1	61	1.30 : 1
신 학 대 학 원	석사과정 2년 (Th.M.)		53	47	9	-	56	1.06 : 1
	석사과정 3년 (M.Div.)		93	110	-	4	114	1.22 : 1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 3년 (M.Div.)		50	48	9	-	57	1.14 : 1
합 계 (정원내)			258	286	18	8	312	1.21 : 1

2015학년도								
과 정	지원과정		모집 정원 (T/O)	지 원 자				경 쟁 률
				최초	추가	후기	전체 지원자수	
대 학 원	박사과정 2년 (Ph.D.)	신학	5	7	-	-	7	1.4 : 1
		상담	5	13	-	-	13	2.6 : 1
		영성	5	9	-	-	9	1.8 : 1
	석사과정 2년 (Th.M.)		47	66	-	-	66	1.4 : 1
신 학 대 학 원	석사과정 2년 (Th.M.)		50	63	-	-	63	1.26 : 1
	석사과정 3년 (M.Div.)		96	92	5	27	124	1.29 : 1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 3년 (M.Div.)		50	43	-	8	51	1.02 : 1
합 계 (정원내)			258	293	5	35	333	1.29 : 1

2016학년도								
과 정	지원과정		모집 정원 (T/O)	지 원 자				경 쟁 률
				최초	추가	후기	전체 지원자수	
대 학 원	박사과정 2년 (Ph.D.)	신학	5	3	2	-	5	1 : 1
		상담	5	4	1	-	5	1 : 1
		영성	5	8	-	-	8	1.6 : 1
	석사과정 2년 (Th.M.)		47	69	-	-	69	1.47 : 1
신 학 대 학 원	석사과정 2년 (Th.M.)		50	68	-	-	68	1.36 : 1
	석사과정 3년 (M.Div.)		96	125	-	-	125	1.30 : 1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 3년 (M.Div.)		50	31	13	14	58	1.16 : 1
합 계 (정원내)			258	308	16	14	338	1.31 : 1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 대학원 → 박사과정(Ph.D.), 석사과정 2년(Th.M.)
- ②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 석사과정 2년(Th.M.), 석사과정 3년(M.Div.)
목회신학대학원 → 석사과정 3년(M.Div.),

본교의 대학원은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각 과정들로 2년과 3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입학정원은 정원내 총 258명이다.

그리고 대학원의 지원자 현황은 앞장의 2013~2016학년도에 지원자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① 2013학년도에는 1.26 : 1이고, ② 2014학년도에는 1.21 : 1이며, ③ 2015학년도에는 1.29 : 1 그리고 ④ 2016학년도에는 1.31 :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의 경쟁률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번 2016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31 : 1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대학원은 입학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내부, 외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전기 모집에서 미달현상이 발생하여 후기 모집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100%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신입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향상 또는 퇴보하였습니까? (입학 성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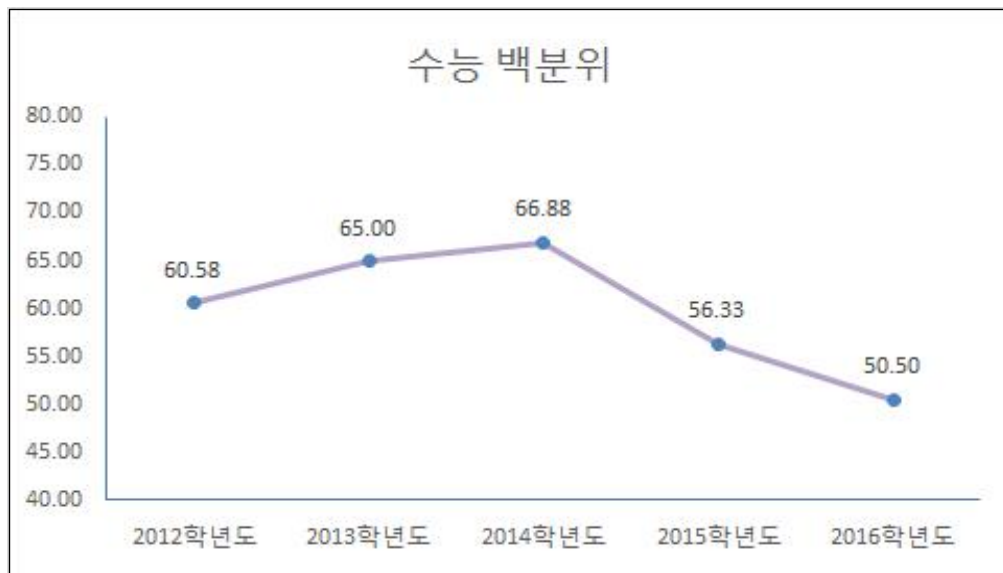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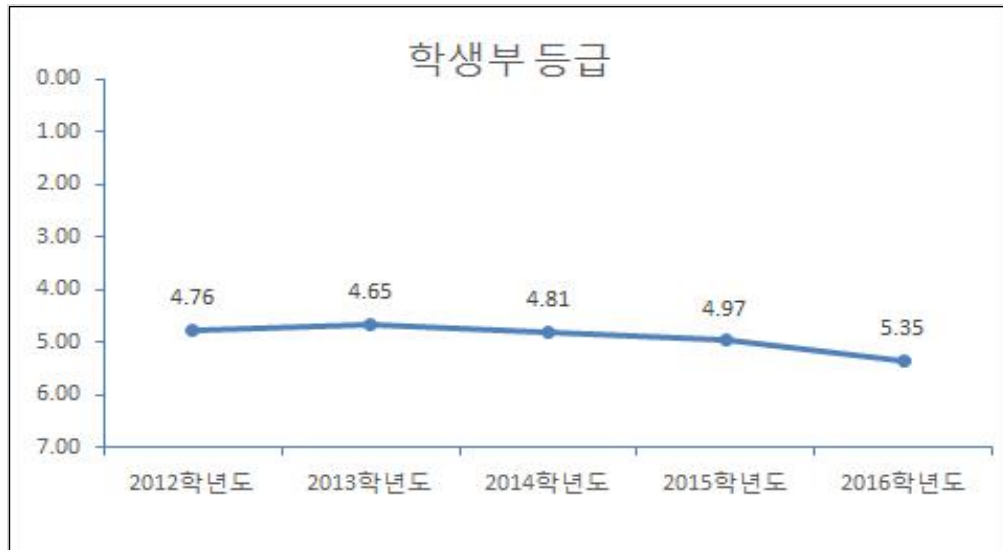
(가) (학부) 수시 학생부 성적 (일반전형합격자)



최근 5년 동안 수시합격자 학생부 평균성적은 학생부 3.3 ~ 3.6등급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나) (학부) 정시 성적 (학생부, 수능)

구 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학생부 등급	4.76	4.65	4.81	4.97	5.35
수능 백분위	60.58	65.00	66.88	56.33	50.50



정시지원자 성적현황은 학생부 및 수능점수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수시모집 지원 증가로 상대적으로 정시 지원자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원) 지적 수준 (입학성적 기준)

대학원의 입학성적 수준은 학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시험 형태의 수능시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대학원 입시의 성적 반영이 일반 대학원의 경우 감리교계통의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학부의 대학성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년(Th.M.)은 입학정원이 47명이어서 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신학전공(과)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 2년(Th.M.)도 입학정원이 50명이므로 감리교계통의 3개 대학교의 신학전공(과) 출신의 경쟁구도 속에 있으므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대학원의 경우 지난 2015학년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3년(M.Div.)의 후기 모집에서는 전기 모집시 모집정원을 채우기 위하여 합격선을 낮추는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보다는 후기모집을 통하여 새로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의 지원 현황을 보면 3년 과정(M.Div.)의 목회신학대학원 지원자가 미달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원자들의 입학 성적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신학대학원의 야간과정의 지원이 줄어든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사회적으로 각 기관 단체의 리더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있으며, 늦은 나이에 소명(Calling)과 선교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하는 추세이다.

(3) 우수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취한 조치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부)

(가) 정시모집인원을 줄이고 수시모집인원 증가(2017학년도부터 수시 80%, 정시 20% 모집)

(나) 수석(수시, 정시) 4년 장학금, 차석(수시, 정시) 2년 장학금 등 입학정원의 10% 장학금 지급

(다) 2012학년도부터 교회 및 고등학교에서 설교, 입시 홍보물, 모집요강 등 홍보 강화

(대학원)

(가) 대학원 특별정원의 기준 조정 노력을 통하여 고위직 공무원 경력자, 기관 및 기업임원, 군경력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으로 판단하여 대령급에서 소령급으로 조정, 사회저명인사에 방송인 포함, 교육계 경력자,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나) 입학장학금을 확대하여 전기모집에서 수석1, 차석 1명을 수석 1명과 차석 2명으로 조정하여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다) 입학시 영어시험을 조건부 입학으로 전면 시행하여 입시문의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졸업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영어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학한 후 영어공부에 더 노력하도록 하였다.

(4) 학생들의 최근 5년 동안 졸업한 학생 중 입학한 후에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학업 도중 중퇴하거나 전과한 학생이 있다면 몇 명입니까? 중퇴하거나 전과한 학생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부)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졸업생	219	208	196	203	199
중도탈락	25	14	8	25	7

학부 전체 재학생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의 이유로는 타 대학교 입학 및 편입, 진로에 대한 고민, 건강상의 문제, 유학 등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대학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졸업생	259	229	254	223	195 (전기만)
중도탈락	9	9	8	3	1

대학원 전체 재학생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다. 2014년도 ~ 2016년도의 졸업생 합계는 총 1,160명이며, 같은 기간 중도탈락자들의 합계는 총 30명이다. 가급적 중도탈락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나 매년마다 중도탈락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등록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퇴하는 경우이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연령대가 20대 중반 이후로 시작하여 주로 30대가 많으며 이 연령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학업을 진행하는 시기이며, 학업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치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되면 이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퇴 등 중도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졸업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 안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이외에 교육전도사나 수련목회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부)

구 분	졸업자	유학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기타
2012년도	201	5	0	103	7	86
2013년도	220	2	24	88	3	103
2014년도	189	0	28	71	8	82
2015년도	234	0	30	81	8	115

(일반 대학원만)

구 분	졸업자	유학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기타
2012년도	56	0	5	1	1	48
2013년도	52	0	6	0	0	46
2014년도	64	0	9	1	0	55
2015년도	36	0	1	0	1	34

본 학부, 대학원의 졸업자 데이터는 본교의 학생경건처에서 매년마다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자료이며, 교육전도사나 수련목회자 등으로 활동하는 현황에 대한 것은 위 표의 ‘기타’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지는 졸업시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양식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파악된 내용들은 본교 학생경건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6) 졸업생들의 진로(교육전도사, 수련목회자 과정, 담임목회자로의 파송)을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학생 경건처에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2.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1) 교회 현장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행 신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신학생과 수련목회자의 성경 지식부족, 교회 현장과 직접 관계있는 실제적인 교양 교육 과목의 부족, 교회의 변화와 관련된 미래학에 대한 교육의 부족 등등을 지적합니다. 귀 신학대학교는 이런 지적들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한다면 귀 학교에서는 이런 지적들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귀 학교에서 위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2) 저희 분과에서는 각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의 현장 실습 교육 및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장실습교육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3. 지난 제31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총회 산하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에 대한 안이 통과되어 실행 위원회에서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 신학교에서는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동의하신다면 통합목회대학원과 현재 신학대학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입니까?

위의 질문 2번과 3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시간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중인 '감리교 통합대학원 기획(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확정안은 아닙니다.)

*** 첨부) 감리교 통합대학원 기획(안)**

감리교 통합대학원 기획안

1. 교육목표

웨슬리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 감리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목회자, 교육자, 전문인을 육성을 목표로 한다.

2. 감리교 통합대학원의 특징

- 1) 통합 대학원은 3년 과정으로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한다.
- 2) 목회와 선교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실천적인 분야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3. 감리교 통합대학원의 운영

- 1) 통합대학원은 목회학 석사(M.Div) 6/6학기로 총 3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
- 2) 3개 신학대학교(감신, 목원, 협성)에서 신학/목회학석사(Th.M/M.Div) 통합과정으로 각각 모집하여 2년 과정 동안 동일 커리큘럼을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치도록 한다.
- 3) 2년 과정 신학석사(Th.M) 학위과정 중 3/6학기를 마친 후 자격시험을 거쳐 목회학석사(M.Div) 학위 과정으로 이동한다.
- 4) 자격시험 합격자의 인원은 3개 신학대학의 입학생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5) 이 경우 2년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신학석사(Th.M)의 학위를 받게되며, 자격시험 통과 후 3년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목회학 석사(M.Div)의 학위를 받게 된다. 다만 M.Div 학위는 감리교단 안수과정에 필수조건이 된다.
- 6) 마지막 1년 과정인 5/6와 6/6학기는 “목회 실천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며, 3년차는 기숙의 형태로 한 장소에서 교육한다. 3년차 통합교육은 교수와 목회자가 팀티칭을 원칙으로 하며 이론과 실천을 함께 교육한다.

4. 감리교 통합대학원의 커리큘럼의 예

- 1) 2년 과정의 커리큘럼(Th.M) 이수학점은 55학점이며, 3년 과정의 커리큘럼(M.Div) 이수학점은 85학점이다.

커리큘럼/학위	신학 석사(Th.M)	목회학 석사(M.Div)
2년 과정 커리큘럼	기초필수과목 28학점 전공과목 21학점	기초필수과목 28학점 전공과목 21학점
3년 통합 커리큘럼		교단필수 과목 18학점 목회 실천 과목 12학점
논 문	논문 또는 논문대체과목 6학점	논문 또는 논문대체과목 6학점
총 이수학점	55학점	85학점

2) 2년 과정의 커리큘럼 (1/6-4/6 학기)

- 2년의 커리큘럼은 기초 필수 과목(28학점), 전공과목(21학점)으로 운영한다.

(1) 기초 필수 과목 (28학점)

- 교회사 (3학점)
- 조직신학 (3학점)
- 기독교윤리 (3학점)
- 신약이해 (3학점)
- 구약이해 (3학점)
- 히브리어 (2학점)
- 헬라어 (2학점)
- 목회상담 (3학점)
- 기독교교육학이해 (3학점)
- 예배와 설교 (3학점)

(2) 전공 과목 (21학점)

3) 3년 통합교육 (5/6-6/6학기)

교단필수 과목(18학점)과 목회 실습 과목(12학점)으로 운영한다.

(1) 교단 필수 과목 (18학점)

- 웨슬리 영성 수련 (3학점)
- 감리교회사 (3학점)
- 감리교신학(웨슬리신학) (3학점)
- 교리와 장정 (3학점)
- 전도학 (3학점)
- 교회성장학 (3학점)

(2) 목회 실천 과목 (12학점)

목회와 선교 전문인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과목을 개설한다. 목회 실천 과목은 교수와 목회자 또는 선교사가 함께 이론과 실천을 팀티칭으로 가르친다. 아래는 목회 실천 과목들의 예이다.

- 교육과 목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젊은이, 노인 등)
- 선교와 목회
- 특수 목회 실천 (카페목회, 사회복지 목회, 찬양목회 등)
- 건강한 교회 세우기(Church Planting)
- 선교의 실제 - 교회 개척하기 (Practicum in Christian Mission: Church Planting)
- 사역자의 영적인 삶 (Spiritual Life of the Minister)
- 평신도 훈련의 이론과 실제 (Theology and Practice of Equipping the Laity)

- 크리스천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 교회 성장 이론과 실제 (Church Growth Theory and Practice)
- 사역에서의 상담의 이론과 기술 (Counseling Skills & Theory)
- 예배 인도자의 이론과 실제
- 문화 사역자의 이론과 실제
- 예배, 설교 모형 연구
- 교회 경영, 행정 세미나

4) 논문 또는 논문 대체 과목은 6학점이며, 2년 과정인 신학석사(Th.M)와 3년 과정인 목회학 석사(M.Div)과정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글로벌 트랙 운영(자격증 수여) :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선교영어, 영어예배인도 등)을 12학점 이수 할 경우 글로벌 목회 자격증을 수여한다.

2. 목원대의 질의답변서

감리교 신학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목원대학교)

1. 최근 5년 동안 각 신학교에 입학과 졸업한 학생들(대학원 포함)의 현황입니다.

(1) 최근 5년 동안 입학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자가 증가 또는 감소했습니까? 지원자가 감소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교의 입학생은 2012년도 85명, 2013년도 83명, 2014년도 84명, 2015년 82명입니다. 입학정원의 감소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것이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도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목원대학교 신학과입시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 년 도	수시1차			수시1차			수시2차			정시가군			정시나군					
20 12	종교지도자추천자			특기자			일반학생			일반학생			일반학생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48	143	2.98	2	0	0.00	8	46	5.75	15	61	4.07	15	25	1.67			
20 13	수시1차									수시2차			정시가군			정시나군		
	종교지도자추천자			검정고시출신자			목원사랑인재			일반학생			일반학생			일반학생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42	117	2.79	2	1	0.50	8	17	2.13	8	32	4.00	14	45	3.21	13	23	1.77
20 14	수시1차									수시2차			정시가군			정시나군		
	종교지도자추천자			검정고시출신자			목원사랑인재			일반학생			일반학생			일반학생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43	128	2.98	2	2	1.00	8	23	2.88	8	36	4.50	15	27	1.80	13	25	1.92
20 15	수시									정시가군								
	일반학생			지역인재			목원사랑인재			일반학생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45	90	2.00	8	17	2.13	10	32	3.20	32	32	1.00						
20 16	수시									정시가군								
	일반학생			지역인재			목원사랑인재			일반학생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모 집	지 원	경 쟁 률						
	47	148	3.15	10	23	2.30	10	47	4.70	10	26	2.60						

2016년 최종 입시 경쟁률은 수시 3.38, 정시 2.6이었습니다. 2012-2015년도 입시 경쟁률의 감소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감소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 내 예비 신학생의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도 한 이유라고 보입니다.

(2) 신입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향상 또는 퇴보하였습니까? (입학 성적 기준)

본교 입학 성적은 2016년도 1.5등급이 최고였으며 평균 3-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예비 신학생의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과 교회 내 예비 신학생에 대한 소명의식의 상실 및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의 상실의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 입학성적은 대체적으로 평균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우수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취한 조치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본교는 신입생 전원에게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2016년에는 이전 학년 대비 입시 경쟁률이 19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중고 미션스쿨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가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과는 입시나 학생 만족도가 좋은 편이어서 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 학생들의 최근 5년 동안 졸업한 학생 중 입학한 후에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학업 도중 중퇴하거나 전과한 학생이 있다면 몇 명입니까? 중퇴하거나 전과한 학생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5년 동안 졸업한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02 - 2015.08 신학과 졸업자 수>												
개수 · 학번		졸업 일자										
학과	전공	2011 -02-1 7	2011 -08-1 8	2012 -02-2 3	2012 -08-1 6	2013 -02-2 1	2013 -08-2 2	2014 -02-2 0	2014 -08-2 1	2015 -02-2 4	2015 -08-2 0	총합 계
신학과	신학전공	66	20	68	19	83	11	73	12	82	17	451
신학부	기독교교육전공	4		3		2			1	1		11
총합 계		70	20	71	19	85	11	73	13	83	17	462

또한 최근 5년간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전과한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03.01-2015.02.28 신학과 자퇴자 수>				
자퇴일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명	12명	11명	6명	1명

2011~2015 신학과 전과 현황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생수	1	1	0	0	0	0	2	2	3	1

자퇴 및 전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소명의식이 없어 타 과로 전과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적성과 불일치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정적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퇴를 하는 경우입니다.

(5) 졸업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 안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이외에 교육전도사나 수련목회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2016년 2월 졸업생

졸업생수	사역 (수련목포함)	학교조교	선교	취업/준비	학위/공부	기타
82명	54명	4명	1명	5명	4명	14명

(6) 졸업생들의 진로(교육전도사, 수련목회자 과정, 담임목회자로의 파송)를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첫째, 매 학기 담당교수와 학생들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교회에서 예비 사역자로서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역할 수 있는 교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전도사, 수련목회자 과정, 담임목회자로서의 파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담고 있습니다.

2.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1) 교회 현장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행 신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신학생과 수련목회자의 성경지

식 부족, 교회 현장과 직접 관계있는 실제적인 교양 교육 과목의 부족, 교회의 변화와 관련된 미래학에 대한 교육의 부족 등등을 지적합니다. 귀 신학대학교는 이런 지적들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한다면 귀 학교에서는 이런 지적들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귀 학교에서 위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본교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매년 설교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설교 방법을 제시하여 줌으로서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목회현장 탐방을 실시하여,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도모, 이를 통해 목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 르네상스 특강을 실시하여 교양인문 영역을 강화하여 교양과 전문성을 동시에 함양한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매년 성경시험경시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지적 함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부 졸업 시 필수로 성경시험을 패스해야 졸업을 인정합니다. 또한 사역에 필수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음악, 미술, 사회복지, 교직 등의 과목을 부전공으로 개설하여 미래 사역을 대비할 수 있는 장(field)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여 현장 목회자를 초청하여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 정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14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여 통일, 사회통합에 대한 교육을 포럼, 세미나, 전공교과, 비교과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다양한 주변 학문을 접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 저희 분과에서는 각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의 현장실습교육 및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장실습교육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교는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 교회실습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실습은 패스과목이기는 하나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이수하지 못했을 시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교회실습은 실습교회의 담임자의 평가, 실습교회 주보, 실습자의 설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담당교수에 의해 종합적으로 심사되고 있어 학생들이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담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 교회실습이 미진한 경우에는 학과장와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교회실습을 성실히 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현재 본교에서는 현장실습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3. 지난 감리회 총회에서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에 대한 안이 통과되어 2018년까지 실행위원회에서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 신학교에서는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동의하신다면 통합목회대학원과 현재 신학대학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교는 통합목회대학원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로 통합된 목회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입니다. 현재처럼 세 학교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리교의 발전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학원이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특징이고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2) 본 대학과 대학원의 역사와 정통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60여년동안 대전과 충청 이남지역에서 농촌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구해온 학교의 목표와 역사와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의 위치는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그 이남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본 대학원은 대전과 충청 이남 지역에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바람직하고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장 이희학, 신학대학원장 임동원

3. 협성대 질의답변서

신학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협성대학교)

1. 최근 5년 동안 신학교에 입학과 졸업한 학생현황과 관련된 질문

(1) 최근 5년 동안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입학생은 전혀 문제없이 정원 100%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모집하는 수시 지원생들의 5년간의 평균 경쟁률은 3 대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저희 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대학구조정 평가를 교과부로부터 해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이탈률을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신입생을 100%충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은 최근 5년 동안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2년 과정의 신학대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충원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3년 과정의 신대원(M. Div)으로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신학대학 신학과를 입학하는 대부분의 신입생들의 내신과 수능 등급이 5-6등급입니다. 그런데 신입생을 100% 충원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학생들의 성적이 6등급 이하인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3)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시철이 가까이 오면 동문교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학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 저희 대학은 입학정원이 79명인데 해마다 5명 내외의 전과신청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합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종합대학이어서 처음부터 전과를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면접을 통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신대원 졸업생의 사역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6) 저희 대학(원)에서는 “목회진로 센터”에 교수님 한분을 지도교수로 임명하여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지도 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입학해서부터 꾸준히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2. 신학교육을 위한 질적 향상에 관련된 질문

(1) “수련목회자의 성경지식 부족”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유사한 성경시험 문제를 기준으로해서 신학교육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서학은 성경해석과 주석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고사에서 120점이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은 학생들의 “요령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성경문제를 신학적인 정리와 성경지식을 함께 요구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만들어 수급조절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거절당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성경문 제집 형태로 다시 출제를 하였습니다. 성경시험 문제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성서학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성경문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신학교육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교회학교와 청소년의 부흥”, “마을만들기”, “소그룹의 역동성”... 교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들은 신학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저희 대학은 학부 3학년과 4학년 과정에서 4학기동안 목회실습이란 과목을 개설하여 현장 목사님들이 오셔서 현장교육 위주의 목회실습을 하고 있고, 신학대학원에서도 두 학기 목회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교회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신학생들이 교회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평가하는데, 학교에서 특정한 교회를 모델로 현장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절로 익속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3. 통합목회대학원 설립에 관한 질문

(1) “통합 목회대학원”이란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6학기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원 과정인지 아니면 기존 3개 신학대학원을 모두 없애고 새롭게 세우는 대학원인지요? 아니면 수련목 합격자들을 진급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대학원을 지칭하는지요? 교과부의 대학교육 정책 기조에 따르면 대학원 과정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대학원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새로운 대학원 신설이 가능할까요? 신학대학원은 교육법과 교단의 수급조절 정책에 구속을 받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2) 만약 학연의 갈등 때문에 통합대학원을 세우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연의 갈등은 분명히 비효율적이며, 감리교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안에 서로 다른 신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대학이 서로 학문적, 영적으로 비교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단본부는 3개 신학대학의 교수들 중 약 간명을 매학기 다른 대학에서 순환강의 하도록 함으로써 학연갈등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완충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학 구조조정 보다 더 심각한 “복병”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mooc 사업입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명문대학들이 mooc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2월에 메이저급 사람대학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며 이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학의 건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학점만 이수하면 대학졸업장을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3개 신학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교과과정을 통합하여 공동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교단 신학대학(원)과 교회는 운명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신학교도 학생이 많고, 교회의 부흥이 쇠퇴하면 신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로교 통합측(장신대)과 합동측(총신대)는 아직 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통합측과 합동측은 감리교에 비해서 아직도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교단 신학교의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단 부흥과 발전의 계획과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부흥을 위해서 신대원을 통합한다면 누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비교적 긴 시간을 고려해 볼 때에 신대원의 통합이 감리교회 부흥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제하면서 신중하게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5) 베이비 붐어 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2028년 이후 목회자 수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잠정적 목회자인 신대원 학생들의 양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선교전략 속에서 신대원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선교전략과 수급조절 대책, 그리고 3개 신학대학원의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학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분과/ 리더십 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

통합목회대학원

1. 현 상태의 고찰
2. 미래목회를 위한 전진
3. 개혁과 그 방향
4.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

1) 이미 지난 28회 백서는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에 속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합문제의 총괄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진하며, 2018년 12월까지 제반준비를 완료하라고 시한을 정하기까지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한 절차와 각고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빛나는 열매는 근원적인 개혁을 기초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내린 결정에 두 가지 물음을 던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이와 같은 결정은 부정적인 현상에 따른 대안인가? 아니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감리교 목회자라는 적극적인 방향제시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론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28회 백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신학대학원의 통폐합 문제가 *학연으로 인한 갈등과 교역자 수급 조정*이라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 것처럼 밝히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합목회대학원은 기득권에 바탕을 둔 인위적인 판단이라는 오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감리교는 연합과 공동체라는 정신에 바탕을 두었기에 마땅히 감리교 목회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간에 사역을 공유하는 훈련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목회자의 갈등은 평신도의 기준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둘째,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나, 미래를 점유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결정이 근시안적인 차원에 머물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감리교의 미래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장로교 통합 측(장신대)의 경우에 신대원 학생은 350명을, 합동 측(총신대)의 경우에 400명을 선발하고 있다. 성결교의 약진과 침례교의 확산 및 독립교회연합회가 두 단체나 경쟁하는 마당에 감리회만 목회자 수급조절이라는 이름아래 축소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감리교회의 지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다. 물론 무작정 현 상태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지평을 확장시킬 적극적인 대안과 방향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2) 미래목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한편으로 세속문화의 확대와 교회의 급속한 붕괴에 관한 경고를 듣는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교인들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목회의 다변화, 그리고 문화사역과 통일을 넘어 범-아시아권을 대비하는 위해 전문 인력의 부족과 교육의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한다. 언제나 대안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이기에,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의 정황을 살펴보자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한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교회와 신앙의 문제는 뒷전으로 내밀리고 있다. 따라서 단지 축소되는 교회의 현실만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지를 설득력있게 대답해 줄 지혜가 필요하다. 삶에 유효한 신앙,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한 플랜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늘 새롭게 사명을 감당해왔다. 또한 교회는 개체교회라는 의식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가나안 교인의 양산은 교회를 향한 도전이지, 거부가 아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선과 손길은 교회의 몫이어야 하며, 우리의 과제인 통일문제와 신앙을 훼손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대응 역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하며, 복음 선포와 선교라는 부르심에 책임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교회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에서 비롯한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종말론적인 전진을 하는 감리회가 되어야 한다.

3) 그런 점에서 통합목회대학원의 방향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신뢰 말이다. 희망의 근거는 충분하다.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충분하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둘째, 복음은 삶을 풍성하게 하며, 불안과 위험을 넘어서도록 용기를 준다.

셋째, 복음은 인종과 세대, 성과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도록 한다.

넷째, 복음은 돈, 권력, 섹스라는 현대적 우상들로 인해 붕괴되기 쉬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다섯째, 복음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지, 도피가 아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다.

4)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더불어 먼저 그동안 논의되었던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목회대학원은 오로지 M.Div과정만 하도록 한다. 다른 과정(Th.M과정 등)은 각 신학대학에서 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① M.Div 과정은 3년으로 하되, 전문적인 목회자 양성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추후 연구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신학대학원(감신, 목원, 협성)에서 2년 과정의 석사를 마친 이들 중에 목회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목회대학원에서 최소 1년 이상 동안 감리교 필수과목을 이수하게 한 후 졸업하게 한다. 따라서 다른 신학대학원에서는 감리교 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이 경우 신학대학원(감신, 목원, 협성)에서 이수한 과목에 따라 목회대학원에서 수업기간이 정해진다.

③ 통합 목회대학원 설치로 인해 현행보다 교육기간이 1년 더 연장되는 것이므로 준회원 과정을 1년 단축시킨다. 즉 통합목회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목사고시를 치르게 하여 바로 준회원에 허입하고, 현행처럼 2년의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와 함께 정회원에 허입하도록 한다.

④ 이렇게 되면 목회자의 서리 과정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의 보완을 위한 졸업 1년 전부터 감리사와 담임자의 지도를 받는 과정(목회 후견인 제도 같은)을 거치도록 하여, 신학교육을 받을 때부터 목회 현장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한다.

⑤ 군종사관 후보생과 선교사 파송예정자는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준회원 허입과 동시

에 안수를 받게 한다.

⑥ 위의 사항들은 목회대학원이 설립되어 학생이 입학하더라도 제1기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독일의 감리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먼저, 미국의 경우에 총 13개의 연합감리교회대학(United Methodist Schools)이 있다. 리스트에는 15개의 연합감리교회대학이 있다고 나오지만, 실상 그 중에 둘은 분교이다. 조사하면서 대학별로 수업들을 묶는 기준 (Fields of Studies)이 판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안수 필수과목은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Membership을 지칭하며, 준회원의 파송 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중, 신학교에서 이수했어야만 하는 과목들을 일컫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heology; church history;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evangelism; worship/liturgy; and United Methodist doctrine, polity and history. 이는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나온 내용이며, 각 연회는 이 과목들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과목들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테네시 연회를 예로 든다면, 이 연회에서 준회원 장로목사(elder)로 파송을 받으려면, 장정이 요구하는 기초과목들 외에 다음의 과목들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 courses in Homiletics, 2 courses in Pastoral Care, 2 additional Bible Courses, 1 Unit of CPE (strongly recommended), 1 Pastoral Leadership/Administration.

독일의 경우는 연회차원에서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목회자 과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석사과정: 성서신학 :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서주석과 해석학

교회사: 교회사(초대-중세-종교개혁-근세)// 교회사와 감리교의 주제들

조직신학: 신학과 철학의 현대적 주제들// 조직신학

실천신학: 목회상황에서 심리학과 상담함// 교회조직, 공동체와 직무론// 성인교육// 설교학

그밖에: 종교와 사회// 석사논문

학사과정: 성서신학: 히브리어// 그리스어// 구약개론// 신약개론// 성서주석개론// 성서주석과 신학

교회사: 교회사와 신학사 1// 교회사와 신학사 2// 감리교와 에큐메니즘

조직신학: 신학적 사유와 연구를 위한 입문// 조직신학과 철학

실천신학: 교육학과 공동체교육// 심리학과 상담학개론// 교회와 사회에서 선포(설교)//

디아코니아와 사회(실습과정 포함)// 공동체와 소통(실습과정 포함)

그밖에: 학사논문

독일감리교신학대학교는 개체교회와 지방감리사가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해서 학교에 보낸다. 대부분 장학생이다. 후일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학생기간은 기숙사생활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령 가정을 가지고 있고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에 학교 인근에서 생활하며 학교행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신학교가 관장하는 특별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장목회 방문, (감리교 운영) 병원실습, 설교실습을 위한 목회현장 실습,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및 자격증 실습, 연회방문 및 총회참석해서 미래목회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학부(B.A.)와 대학원(M.A.)을 각 대학에 위임하고, M.Div.과정을 감리회가 주도한다. 앞서

이 문제를 총회 실행부위원회라고 결정했는데, 목회자 과정을 위해서 전문위원들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그 과정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본부의 전문가 집단과 3개 대학의 T.F.Team이 함께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

둘째, M.Div.과정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는 커리큘럼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즉, 미국처럼 대학에 전반적인 교육을 위탁하고, 연회별로 6-9개 과목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는 1년의 과정으로 충분하다.

셋째, (이후는 셋째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한다) 대학은 학문적인 과정을 교육하고, 본부가 목회자 과정을 충분하게 시행하려고 할 경우, 수도권-사관학교처럼 전원 기숙사생활(혹 가정을 가진 경우에는 인근에 주거하도록 유도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은 최소한 2-3년이어야 하며, 예배와 기도를 비롯한 공동체 생활이 필수적이다.

넷째,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성서언어와 통독 및 주석능력)와 다양한 현장학습(인간과 문화에 대한 이해, 선교지 방문 및 전도활동)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정한 교회에 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사명감은 자긍심을 심어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본부-학생으로 이어지는 지원과 관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이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선교사들과 문화사역자들의 체험도 나누어지도록 한다. 가급적 선발된 학생들 전부 교회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이면 좋겠다.

[5분과/ 은급, 최저생계비, 안정된 목회, 선교사 복지]

목회자 복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 된지 13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감리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교회성장은 멈추었고 급기야 2010년부터는 교인이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던 목회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섬기던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로목사들의 현실적인 생계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베이비 붐(1955년-1963년까지 태어난 7,125,000명)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서 원로목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 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은퇴 목회자를 위한 은급문제를 해결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한 구조로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리교회의 은퇴목회자를 위한 은급비 문제를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늘어난 도시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어촌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였고, 농어촌 교회는 인력부족, 재정부족 문제가 생겨났다.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연구 하려고 한다.

2015년 12월 현재 감리회의 선교사는 76개국에 670가정, 1,188명의 선교사가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 향후 2018년에는 선교사의 수가 1,400~1,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758명의 선교사 자녀를 포함하면, 1,852명의 선교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선교사의 파송 추이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 복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역자 복지대책으로 정부정책이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는 시점이 2018년 1월 1일로 정해진 지금 교역자 과세대책을 마련하고 교회와 교역자 수를 어떻게 조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당장 카드 빚 등으로 위기를 당한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연구하고자 한다.

즉 제5분과는 목회자 복지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다음 4가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1부에서는 감리회 목회자의 은급대책

제2부에서는 농어촌 목회자의 복지대책

제3부에서는 선교사 복지대책

제4부에서는 교역자 복지대책

제1부 감리회 목회자의 은급 대책

1. 은급 기금 확보

감리회의 은급제도의 시작은 1914년 6월 제7회 조선 미감리회 연회에서 은퇴 교역자들과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나눔을 실행하면서 시작 되었다.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는 은급금 연보와 남감리회 전도인 상조회를 운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34년 기독교 조선감리회는 교역자 은급제도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역자들과 유족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납치 및 순교자 유족들을 위해서, 은퇴 목사들을 위해 매년 2월 첫 주일을 경로주일(현 은급주일)로 전국교회가 성수하도록 총회가 결의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것이 오늘의 감리회의 자랑인 은급제도이다.

감리회의 은급제도는 1983년 제15회 총회에서 입법화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한국 개신교회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시행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복지제도로 감리회 은퇴목회자들의 일생을 바친 헌신에 대한 노후대책으로 성도들의 헌금, 그리고 교역자들의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운영되었다.

감리회 은급제도의 출발은 성서적이고 신앙적이었다. 은퇴 후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교역자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가난한 교회에서 은퇴하여 노후생활이 어려웠던 교역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기독교적인 나눔의 정신으로 감리회 전체가 부담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은급제도의 운영이 가능하였던 것은 교역자의 연령별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기 때문이다. 은급비를 받는 교역자는 소수이고, 은급부담금을 내는 교회와 교역자는 다수이기에 가능한 제도였다. 그러나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연령별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은급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은급재단이사회가 컨설팅 업체에 의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리회 은급제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은급금 수령자가 2015년 1천7백여 명에서 5년 뒤인 2020년에는 2천 명을 돌파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천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10년 만에 수령자가 1천명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로목사는 1998년 280명에서 2015년 1168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감리회교인수는 2010년 1,587,385명에서 2015년에는 1,468,442명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66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3.1%에 달하고, 2060년에는 40%대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년 부양비는 17.9명으로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한 셈이다.

저출산 지속,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203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 인구 2.6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노령화 지수는 94.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104.1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보고서에 의하면 적립방식으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과거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기금을 10배 이상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교회와 교역자의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은급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면 은급기금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은급부담금 인상

- ① 교역자가 허입은급부담금을 모두 내게 하여야 한다. 특별히 2008년 이전에 허입한 교역자 중 허입 부담금 미납자는 2017년 말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 ②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납부한다.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 ③ 교회 은급 부담금을 인상한다.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의 2%를 교회은급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부터 은급 부담금을 2.5%로 올려야한다

2016년부터는 2.2 %를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은급 부담금 2%와 본부부담금 중 은급부담금 0.2%를 합한 것이다.

또한 2018년에는 신학대학 지원금 0.3%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은급부담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하게하여 2019년부터는 경상비 총 결산의 2.5%로 인상하여야 한다.

2) 은급금 지급 대상과 재직 기간을 명확하게 한다.

목회에 전념하지 않는 불성실 교역자는 은급대상자 자격 취소나 지급 연한을 삭감 할 수 있다.

불성실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호와 같다.

- ①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 ②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 ③ 전임으로 사역 하지 않는 이
- ④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 ⑤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 사상에 빠진 이
- ⑥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3) 은급주일 성수를 권장한다.

2016년 은급주일을 지킨 교회가 91개 교회였다. 예루살렘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울때 안디옥교회가 헌금을 보냈다 (행 11:29-30) 감리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요하다. 11연회 215지방 6263교회가 있는 감리회에서 모든 교회가 은급주일을 지키고 그 헌금을 은급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은급주일을 성수하여 은급주일 헌금을 은급부로 보낸 교회에 대하여 혜택을 주도록 한다.

4) 부담금 외 재원마련 방안

① 광화문사무실 이전 활용

- a. 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광화문빌딩 8개 층(13~20)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연회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교역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 b. 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광화문빌딩 8개 층(13~20)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금원으로 교역자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 c. 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광화문빌딩 8개 층(13~20)을 매각, 서울 외곽에 단독 빌딩을 구입하여 감리회 산하 기구 입주와 임대를 하여 수익금으로 교역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② 은급재단사무실 이전 활용방안

- a. 은급재단 소유의 광화문 빌딩 12층과 하나로 빌딩 8층을 매각한 후 그 재원으로 서울 외곽에 단독 빌딩을 구입하여 임대 및 오피스텔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교역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 b. 은급재단 소유의 광화문 빌딩 12층과 하나로 빌딩 8층을 매각한 후 그 재원으로 부동산 전문 컨설팅회사에 위탁하여 그 수익금으로 교역자 복지를 위해 활용한다.

- ③ 유지재단 소유의 금촌 묘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을 목회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2. 은급기금 운용방안

은급기금을 정기예금 이자로 운영해 오던 시기는 지났으므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기금 이윤의 확대를 위해 전문인 및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다.

3. 은급부 전산화방안

은급부 전산화 작업방안에 대하여 자체 내에서는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바일로 개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부 농어촌 목회자의 복지 대책

미자립 교회 기준이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미자립 교회의 수가 37%에서 4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재는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가 농어촌에 더 많이 있어서 미자립 교회의 60% 정도는 농어촌에 있다. 농어촌 교회를 살리고 농어촌 목회자의 복지 대책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1. 정주목회자를 선발하여 (100-120명 추산) 지원하도록 한다.

먼저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젊고 의욕과 열정이 있고 계속 농어촌목회에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정주목회자를 찾아서 이들을 집중 지원함으로 교회 성장과 자립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최저생활비를 마련해 나

가야한다.

정주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인적, 물적 교류와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어촌 교회와 도시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어 돕도록 한다.

농어촌 교회와 도시 지방의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교류하며 나눔을 실천한다.

농어촌 목회자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지방에서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농어촌 목회자와 자녀들을 자매결연 맺은 도시 지방으로 초청하여 교제한다.

3. 농어촌 교회 목회자 우대 제도를 마련 한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역자의 은급비를 감면해 주고 연회나 감리회 본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비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4. 농수산물 인터넷 홈쇼핑을 개설한다.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도시에 직접 연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쇼핑을 개설한다. 홈쇼핑의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 일은 서로가 선한 이웃이 되어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5. 선교국 농어촌 선교교회와 연계하여 돕는다.

기존 농촌과 도시의 ‘생명의 망 잇기’ 운동과 연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하는 운동이 ‘생명의 망 잇기’이다. ‘생명의 망 잇기’를 통해 농어촌 교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도시교회 교우들과 연결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다양한 형태로 도시교회 교우들과 나눔으로써 농촌교회 교우들에게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도시교회 교우들에게는 건강한 생명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망 잇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전체 감리회가 참여하고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서로 상생의 결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제3부 선교사 복지 대책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마28:18~21)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2015년 12월 현재 감리회의 선교사는 76개국에 670가정, 1,188명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다. 또한 187개 교회의 193명 세계한인교회 교역자(2016년 2월말 현재)들이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데 1000명을 넘어선 선교사들과 그 가족의 복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교사들이 잠시 귀국하여 체류 중에 있는 동안 머무르며 휴식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필요하다.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돕는 것도 필요 하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

금을 모든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선교사들이 은퇴하게 되면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다. 평생 선교지에서 고생한 선교사들이 남은 여생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020년 은퇴 감리회선교사가 47명 예정이고, 2025년에는 84명, 2030년에는 145명으로 추산된다. 은퇴선교사들을 위한 교단적인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감리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1. 선교사 복지주일을 제정하고 헌금하여 돕는다.

감리회는 신학대학주일, 은급주일, 평신도주일, 교역자보건주일, 등 여러 종류의 기념 주일을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선교사 복지 주일을 제정하고 특별헌금을 하여 선교사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2. 현존하는 게스트하우스 정보를 수집하고 감리회 홈페이지에 알려져 활용하도록 한다.

선교사들은 기독교 행사, 안식년, 치료, 비자 연장, 연회참석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머무르게 된다. 선교사가 머무르는 장소와 기간 및 형태도 다양하다. 가족과 함께 국내 머무르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한다.

안식년 선교사가 1년간 국내에 있는 동안 적어도 3-4회는 숙소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선교사가 대부분이다. 한국 감리회 선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교회에는 많은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 이 게스트 하우스의 정보를 모아서 감리회 홈페이지에 알려져 활용하도록 한다.

3. 제 1연수원을 본래의 건축목적에 합하게 선교센타로 환원 하거나 공동 사용하도록 한다.

제 1연수원의 설립취지 및 경위:

1975년에서 1985년까지 10년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5천 교회, 100만 신도 선교운동을 전개하여 3천 교회와 100만 신도의 양적 증대를 이룩했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 가운데 질적 성장도 도모하고자 교육과 영성 훈련을 통해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당시 선교국 총무인 김준영 목사의 발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훈련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1984. 11. 8.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 1984. 11. 16.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산72번지 일대 주식회사 근교개발 소유지 85,566평(임야 5필지)을 독일 복음교회(EKD) 지원금 ₩236,574,000원을 시작으로 ₩857,164,000원에 계약 매입하였다.

2) 1985. 12. 30. 문공부로부터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서울 마포 구 신수동 371-1 대지 3,835평 처분금 ₩2,612,099,600원 중 ₩1,322,451,000원을 무상 양도 승인 받았으며 이 승인과정에서 「선교훈련원」을 「선교연수원」으로 개칭할 것을 권고 받았다.

3) 1987. 4. 7.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연수원 운영규약을 잠정 통과하고 총회 시 인준 받기로 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때 「연수원」으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조직/ 위원장: 장기천 감독, 서기: 이종수 목사)

4) 1988. 7. 25. 연수원 건축을 위해 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직/ 위원장: 표용은 감독, 서기: 김태연 장로)

5) 1988. 10. 13. 개발위원회에서 효과적인 건립추진을 위하여 유스호스텔 업종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당국에 사업승인 신청하기로 의결하였다.

“유스호스텔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원이 수익사업의 성격을 띠 때 표방하는 합법적인 얼굴이다. 그 예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대정부와의 법적인 관계에 있어 유지재단이라는 법인체를 형성할 뿐 감리교회의 신학, 제도, 정책, 사업수행에 있어 대표기관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러므로 유스호스텔 건립은 연수원의 건축을 합법적,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경제적 자립운동을 겨냥한 대안일 뿐 별도의 사업체 신설을 뜻하지 않는다.(1991. 1. 19. 개발위원회 회의록)”

당시 관계당국(고양군청, 건설교통부)이 유스호스텔 사업을 적극 권장하였다.

6) 1989. 11. 1. 제18회 특별총회에서 연수원 입법과 함께 운영규칙의 통과로 「연수원」이 정식 발족하였다.

1995. 8. 9. 연수원 건물 준공시 이 건물을 위하여 해외교회의 공사지원비가 ₩1,947,024,076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제1 연수원은 선교사를 위한 선교센타로 사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해외선교부의 독립을 추진 한다.

한국감리교회 선교 131주년과 아펜젤러 및 스크랜턴 선교사 내한 130주년, 그리고 선교사 파송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며, 국제화에 맞는 선교정책 실현과 향우 세계선교 발전을 위하여 해외 선교부의 독립을 추진한다.

5. 선교사 복지재단을 설립 한다.

선교사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선교사 한 가정 이상 후원하는 교회를 파송이사로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책위원 혹은 재정위원으로 참여 하게한다. 4억 원 규모의 재정이 예상된다.

제4부 교역자 복지 대책

1. 교역자 과세대책 및 생활비과세 표준을 마련한다.

기타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전환하도록 제안 한다.

목회자 생활비, 도서비, 목회비, 차량유지비 등 과세대상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2. 교회설립과 교역자 인준을 일원화시키고 관리함으로 교역자 수를 조절 한다.

현재 교회 설립은 지방에서 담당하고 목회자 관리는 연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한다.

3. 교회재산의 통폐합법을 마련한다. (교회수를 조절하여 구조조정을 한다)

장기간 미자립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임대료는 상승하여 미자립교회가 유지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에 두 교회가 한 교회로 통폐합하면 한 교회의 임대료가

선교비로 쓰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재산 통폐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교역자 최저생활비 보장 대책을 마련한다.

감리회의 개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가 사역에 전념하여 교회의 선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역자 최저생활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역자 생활 지원금 산정은 매년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수급교역자의 기준 연령과 기한을 정한다.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는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담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역자 생활지원 재원마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개체교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
- 2) 연회 및 지방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
- 3) 감리회 출판국의 매년 사업 수익금중 20%
- 4) 부담금 2019년도부터 0.3%
- 5) 본부 임대수입금 중 일부 (기부금액은 매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 6) 기타 기부금

5. 위기목회자지원은행 설립

1) 설립취지 : 긴급한 상황에 처한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자금 마련 방안이 없어 무리한 카드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지원 대책마련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한다.

2) 목 적 : 긴급한 상황에 처한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운영기금 : 3억 원 이상

4) 기금마련 : 본부 예산 및 개체교회 및 개인후원금, 단체후원금 등으로 한다.

① 본부 예산 지원

② 개체 교회 지원:

- a. 결산 100대 교회에서 1구좌 300만원을 부담한다.
- b. 전교회에 동참을 요구한다.
- c.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 기관 단체에 협력을 요구한다.

5) 운영방안 :

① 긴급 상황에 처한 비전교회 목회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준다.

② 이자는 연 2% 이내로 한다.

③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 조직 :

① 위원장 : 감독 중에서 1명

② 본부 임원 중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

③ 은급재단 이사 중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

④ 장단기 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

⑤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중에서 목사 1명, 평신도 1명

⑥ 연회 총무 중에서 2명

합 11명으로 한다.